

石峯 韓濩의 作家像 : 『韓景洪眞蹟』

李 完 雨*

차 례

1. 『한경홍진적』의 書誌事項
2. 『한경홍진적』의 內容分析
3. 석봉 한호의 作家像

石峯 韓濩(1543-1605, 字 景洪)는 여말선초 이래 유행했던 조맹부의 松雪體로부터 王羲之體로 복귀하여 이를 바탕으로 특유의 석봉체를 이루어낸 조선중기의 대표적 서예가이다. 그간 조선시대의 서예에 대한 개관적 연구를 통해 한호 서예의 의미를 어느정도 가능하게 되었지만 아직까지 그에 대한 일반의 인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떡장수 어머니의 엄격한 훈도 아래 독실한 노력에 힘입어 寫字官으로 입신했다거나 한미한 집안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문인적 운치가 모자른다는 등에 머물러 있다.

그런데 한호에 대해서는 실제로 많은 찬사가 전하며 또 이에 걸맞는 필적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이런 찬사와 필적을 넓게 해석해줄 만한 연구는 미미한 상태이다. 그가 어떤 공부를 했고 어떤 취향이 있었으며 어떤 交友를 했는지 등에 관한 조사를 통해 그의 作家像을 파악하지 않고서는 예술적 품격을 논의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그간 필자가 조사했던 한호의 필적 가운데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韓景洪眞蹟』은 그의 작가적 성격을 파악하는 데에 여러가지 정보를 지니고 있어 본고의 대상으로 삼게 되었다.¹⁾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본고는 제38회 전국역사학대회 미술사부분('95. 5. 27)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보완한 것이다.

1) 『韓景洪眞蹟』 3帖 1帙은 일제강점기의 초대총독였던 테라우찌 마사타케(寺內正義, 1852-1919)가 1916년 4월 15일 총독부박물관에 기증하여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유물번호 本館 2203. 첩에는 “石峰眞蹟”이라 제첨되어 있고 질에는 “韓景洪眞蹟”이라 제첨되어 있는데, 현존하는 한호의 필적 가운데 전자와 같은 예가 많으므로 본고에서는 후자를 작품이름으로 사용하였다.

1. 『한경홍진적』의 書誌事項

서첩은 軟靑色 종이로 만든 帙에 싸여 있다. 帙 앞면에 “韓景洪眞蹟 抱拙堂藏”이라 제첨되어 있고 위아래 마구리에는 각각 “抱拙堂珍藏”·“韓景洪眞蹟”이라 쓰여 있으며, 이면에는 아래와 같은 識文이 쓰여 있다(挿圖 1).

趙文敏書跋에 이르길 “글씨를 모으고 글씨를 간직함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 글씨를 잘 보는 사람은 정신을 맑게 하고 생각을 가다듬으며 책상을 깨끗이하고 향불을 피운다. 속으로 말지 말고 귀를 접지 말며 손톱으로 글자를 침해하지 말고 침으로 폭을 넘기지 말며 베게삼지 말고 옆구리에 끼지 말며 손상되면 수리하고 뒀으면 덮으라. 뒤에 나의 글씨를 얻는 이에게 이 법을 함께 드린다.”고 하였다.

趙文敏書跋云, 聚書藏書, 良非易事, 善觀書者, 澄神端慮, 淨几焚香, 勿捲腦, 勿折角, 勿以爪侵字, 勿以唾揭幅, 勿以作枕, 勿以挾刺, 隨損隨脩, 隨開隨掩, 後之得吾書者, 並奉贈此法.

위는 元 趙孟頫(1254-1322)의 글로 書蹟收藏과 觀賞에 관한 교훈적 내용이다. 지문에는 서명이 없지만 「抱拙堂」이란 두인과 「金光國印」·「元賓氏」란 관지가 찍혀 있어 본 서첩이 조선 후기의 서화수장가 金光國(1725-?, 자 元賓, 호 石農)의 소장품였으며 그의 珍藏處가 抱拙堂였음을 알 수 있다. 紺色 비단으로 포장된 서첩에는 “石峰眞蹟”이라 제첨되어 있고 그 이면에는 「欲藏萬卷異書終身嘯詠其中」·「慶州金氏家藏書畫之記」란 收藏印이 찍혀 있으며, 제3첩 끝면에는 「子子孫孫人永保之」·「月城金氏傳家之私印」이란 수장인이 찍혀 있다(挿圖 2). 이러한 점으로 보면 김광국이 본 서첩을 입수한 뒤 改裝하여 수장인을 찍고 질을 만들어 제첨과 지문을 써서 家藏珍蹟으로 전하려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지문에서 경계한 바대로 본 서첩은 장황도 잘 되어있고 보존상태도 양호하다.

모두 세 첩으로 크기는 세로 26.2cm 가로 16.5cm이다. 제1첩과 제2첩은 여러사람의 시문을 黑紙·紺紙에 금니로 쓴 것이고 제3첩은 도교경전을 백지에 묵서한 것이다. 紀年은 세 곳으로 제1첩의 1602년 7월 14일과 제2첩의 1604년 4월 8·9일이다. 이 때는 한호가 加平郡守(재임기간 1599~1601)²⁾에서 해직된 이듬해와 歙谷縣令(1603. 8. 1~1604. 윤9. 15)에서 파직되기 6개월 이전으로 그의 말년에 해당된다.

2) 가평군수 재직년대는 확인되나 月日は 미상이다. 임관은 1599년 3월 19일 사헌부 啓로 司禦에서 遞差되었고(『선조실록』 권110, 32년 3월 무술) 윤4월 10일 宗親府 典簿 재임시 <出師表>를 쓴 필적이 전하고 있어 대략 그 뒤로 추측된다. 해직은 1601년 4월 21·23일 사헌부에서 그의 파직을 啓하나 推考를 명한 사실(『선조실록』 권136, 34년 4월 무자·경인), 그해 7월 24일 嘉平郡齋에서 「石峯清妙草廬詩序」를 쓴 필적, 李廷龜가 가평군수에서 解官된 한호와 함께 귀경하여 遠接使行에 참여했던 것으로 보아(기간은 11월 16일부터 익년 윤2월까지. 『月沙集』 卷17 「韓石峯新赴歙谷, 與余同日辭朝…」, “昔君守加平 解官隨我歸 經年鴨塞上 酒賦相因依”; 卷9 「東槎錄」 序 참조) 대략 10월까지 재임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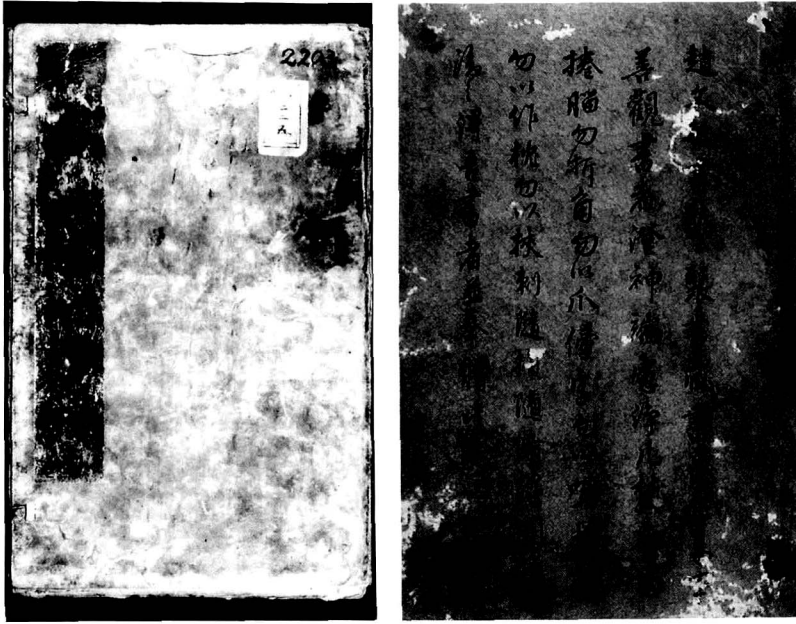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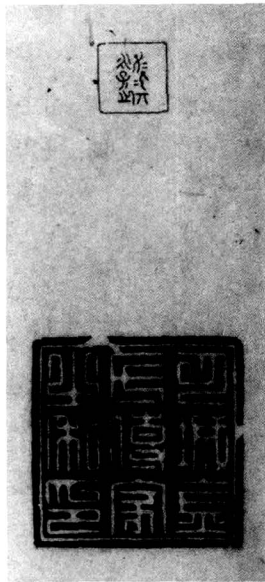


插圖 1. <『한경홍진적』의 帙과 金光國의 識文>, 紙本墨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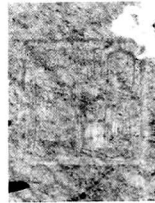
插圖 3. <『한경홍진적』의 「石峯」印影>, 上: 제2첩 말미, 下: 제3첩 말미, 각 1.6×1.6cm



「子子孫孫人永保之」(2.2×2.2) · 「月城金氏傳家之私印」(6.9×6.9)



「欲藏萬卷異書終身嘯詠其中」(2.4×1.5) 「慶州金氏家藏書畫之記」(3.8×2.0)



「抱拙堂」(1.5×1.5) 「金光國印」(1.5×1.5) · 「元賓氏」(1.5×1.5)

插圖 2. <『한경홍진적』의 金光國 印影>, 단위 : cm

2. 『한경홍진적』의 內容分析

〈第1帖〉

1) 崔岙, 「題韓景洪書帖後序」

「한경홍의 서첩 뒤에 題하는 서문」

나의 고조부가 포의로 글씨를 잘써 光廟朝(세조)에게 알려져 食祿이 절충상호군에 이르렀다. 집안에 일기 몇 권이 전하여 내가 꼬마였을 때 보았는데 필법이 매우 묘했으나 불행히 망실되었다. 집안어른 直講公 父子와 先考(崔自陽)가 모두 글씨로 이름났으나 妙境에 이를 만큼 지나치게 일삼지는 않았다. 한경홍은 실제 직강공의 외손이니 그가 상호군공에서 나온 것 또한 4대이다. 한경홍의 선조는 본래 儒家여서 명필이 없었으며 경홍이 스스로 作字를 알았기 때문에 바로 筋骨을 세울 수 있었다. 성장하여 王右軍에게 글씨를 받는 꿈을 두 번 꾸고서 이를 자부하며 그의 첩을 구해 임서하니 더욱 필진했고 마침내 額書나 眞書나 行書가 천하에 묘를 이루었다. 어찌 내 고조부에서 흘러나온 핏줄이 4대로 넓어지도록 없어지지 않고 외가에서 피어났는가? 내가 매년 경홍과 함께 말하다가 이에 이르면 문득 추모하는 감정었는데, 경홍 또한 존모하는 뜻이 도타웠을 뿐만 아니라 마치 姓을 얻은 사람과 같았다.

대저 書는 六藝의 하나로 藝에서 가장 드러나는 것이니 妙한 것은 세상에 나돌 수 없다. 그래서 부귀하고 힘있는 사람이나 운치있는 사람 할 것 없이 반드시 그것을 얻어 名畫와 짝지으려 하고 감추어 영화로 삼으려 하니, 경홍이 한 나라에서 분주했음은 마치 중국사람과 같았다. 그런데 일찌기 듣기를 吳道子란 사람이 張旭에게 글씨를 배우다가 이루지 못하고 떠나가 그림을 배웠는데 오도자의 그림이 예나 지금이나 뛰어나다 하니, 이로써 글씨의 어려움이 그림에 비할 바 아님을 알겠다. 하물며 큰 鐘에 입혀 빛나는 모습을 신고 넉넉한 碑에 새겨 영원히 내려주니 그 배품과 쓰임이 文章짓는 것과 같이 위대하고 아름다운데 어찌 書畫라고만 말하겠는가! 그러나 지금의 문장 가운데 과연 경홍의 글씨에 상응할 만한 것이 있는가? 이는 아직도 알 수 없는 일이다. 또 말세의 습속은 듣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보는 것을 천하게 여기며 게다가 나라의 습속은 오직 지위와 명망으로 그를 저울질하니, 비록 경홍의 글씨로도 혹 흠을 면하지 못했지만 경홍은 결코 속으로는 움직이지 않았으며 걸로 급한 적이 있었을 뿐이다.

내가 경홍을 위해 그것에 대해 성낸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경홍 손에서 나왔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논의를 해낸다고 생각한다. 설령 경홍이 右軍 글씨를 臨한 것을 金石에 새겨 쉼어서 전하더라도 과연 그것을 가려낼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 애당초 (글씨는) 문장의 妙와 같지 않기 때문에 눈으로 보지 않은 것에서는 반드시 楊子雲(漢 楊雄)같은 사람을 기다려야 하며 또 반드시 이렇다고 알지도 않으리니, 아 역시 기이하구나! 그래서 이것이 바로 경홍 글씨가 귀중하게 여겨지는 까닭이다. 그의 초서는 비록 나조차 眞書·行書에는 못미치는 것같다고 생각했지만 엄중하게 쓰기 어렵다는 옛사람의 말을 보고서는 경홍은 이미 그것을 터득했으며 못하는 것이 없음을 참으로 깨닫게 되었으니, 오직 아래의 범상한 우리들의 말이다. 그러므로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과 의심한 뒤 믿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한 번 聖上の 눈에 들더니 蘭亭繭紙처럼(唐 太宗이 견지에 쓴 왕희지의 蘭亭敍를 愛藏한 일) 다 큰 시대에 없던 대우였다. 그래서 그가 중년에 힘을 다한 글씨는 대다수 임금께서 취해 內藏에 들였고 여러번 좋은 하사품이 있었는데, 內藏의 옷칠함에 넣은 고운 베틀 하나를 꺼내 뛰어난 기량을 빛나게 하니 가히 영광이라 하겠다. 光廟朝 때 나의 조상도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경홍이 늙어서는 더욱 쇠하여 붓잡기를 더욱 싫어하니 세상에는 비록 있어도 집에는 도리어 전하는 것이 없다. 근래 자신이 한가할 때 써서 마음에 드는 약간의 글을 모아 첩으로 만들어 장차

후세에 남기고자 하며 나에게 한마디 적으라고 하니 나 또한 그 후손이 이 노인의 墨妙에 유래가 있음을 알리고자 하여 이에 쓴다.

만력 24년 병신년(1596) 가을 9월 초하루 간이거사 최립지 序함.

임인년(1602) 7월 14일 씀. 「석봉」

위 서문은 1596년 가을 崔岵(1539-1612, 자 立之, 호 東臯·簡易)이 한호의 서첩에 써주었던 것을 1602년 7월 14일 한호가 다시 쓴 것이다(圖 1).³⁾ 이 글은 李廷龜(1564-1635)의 「韓石峯墓碣銘」과 함께 한호의 행력을 잘 전한 대표적인 기록으로 한호의 家系와 그에 대한 世評, 그리고 宣祖로부터의 知遇에 관해 서술했다. 최립은 李珣의 문인으로 문장에 매우 뛰어나 특히 임진왜란 때 承文院 提調로서 많은 事大文書를 지어 이름을 떨쳤다. 그는 한호와 인척였을 뿐만 아니라⁴⁾ 한호처럼 한미한 집안에서 출생하여 뛰어난 재주로 입신했기 때문에 서로를 의지하는 깊은 사이였다.

불행히도 1596년 최립이 서문을 쓴 한호의 서첩이 전하지 않으며 또 『한경홍진적』의 필사의도를 알려주는 자료도 전하지 않는다. 단지 최립의 서문에 적혀 있듯이 한호가 약간의 글을 필사하여 후세에 남기려 했던 것처럼 이를 계기로 그뒤 본격적인 필사를 계획하지 않았을까 추측될 뿐이다. 그래서 가평군수에서 解官되고 이어 遠接使行을 마친 뒤 모처럼 한적하던 1602년 7월 14일에 8년전 최립이 지어준 서문을 필두로 필사작업을 시작했고 그뒤 肅恪현령으로 재임하던 1604년 4월 8·9일 필사를 마쳤던 것으로 짐작된다.

2) 韓漢, 「九龍硯」·崔岵, 識文

오색구름 찬란하듯 맑고도 짙으니 천지의 영재들이 모이는 곳이라네.
분명코 神龍이 변화시킨 것이러니 그 누가 옥도끼로 갈아 내었는가.
봄날의 이슬기운 硯池 위를 적시고 햇살과 안개빛이 붓끝을 감아도니
黃庭經 쓸 때마다 助力이 있는 듯 山陰의 羽客을 언젠가는 만나리.

위는 구룡연이다. 「석봉」

사람들은 경홍이 글씨에 능하다는 것을 알지만 경홍에게 詩가 있다는 것을 모른다. 경홍은 평생 李白을 애송하여 말하는 사이에도 술술 흘러나와 사람들의 심정에 들어맞으니 그가 읊는 것이 구차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구룡연」이란 시를 보니 과연 남보다 훨씬 뛰어나다. 그러나 경홍의 글씨에 대해 여전히 흠잡기에 겨를없는 사람이 많은데 하물며 시에 대해서야! 일찌기 듣기를 경홍이 이 시를 許美叔(許筭) 학사에게 보이고 화답을 구했더니 “나로서는 더할 게 없다”고 했다란다. 아! 美叔이 이미 고인이 되었으니 누구에게 이를 물어보고 한 바탕 웃어보겠는가! 간이웅 적다.

3) 원문은 崔岵, 『簡易集』 卷3 「韓景洪書帖序」 참조.

4) 최립의 즉부 최담(崔湛)이 한호의 장인이었으므로 外家로 8촌 사이이다. 李廷龜, 『月沙集』 卷47 「韓石峯墓碣銘并書」, “石峯生於癸卯, 卒於乙巳, 得年六十三, 娶學生崔湛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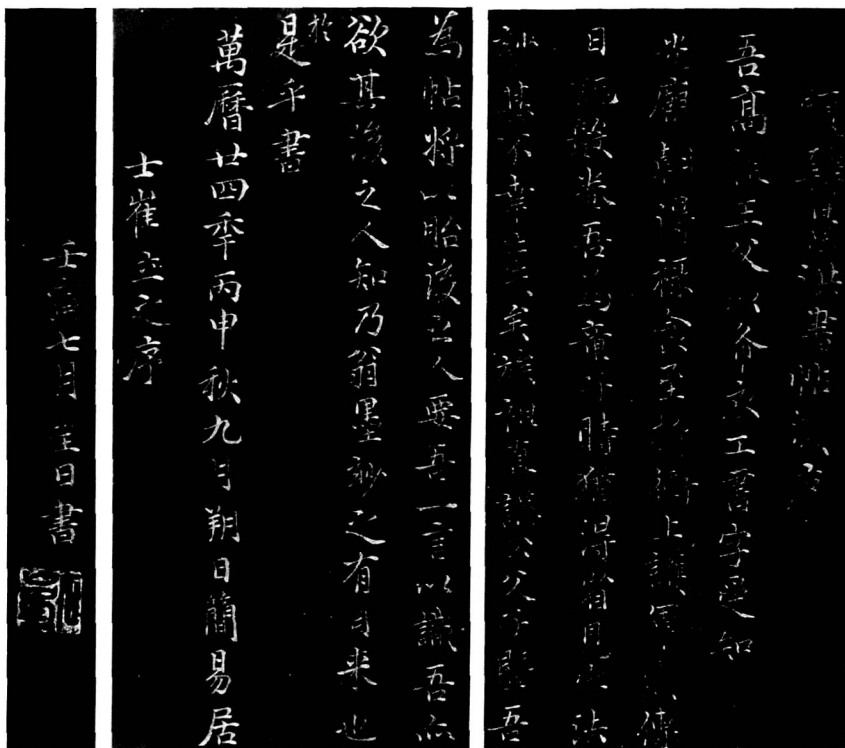


圖 1. 한호, 〈題韓景洪書帖後序〉 제1·11면, 黑紙金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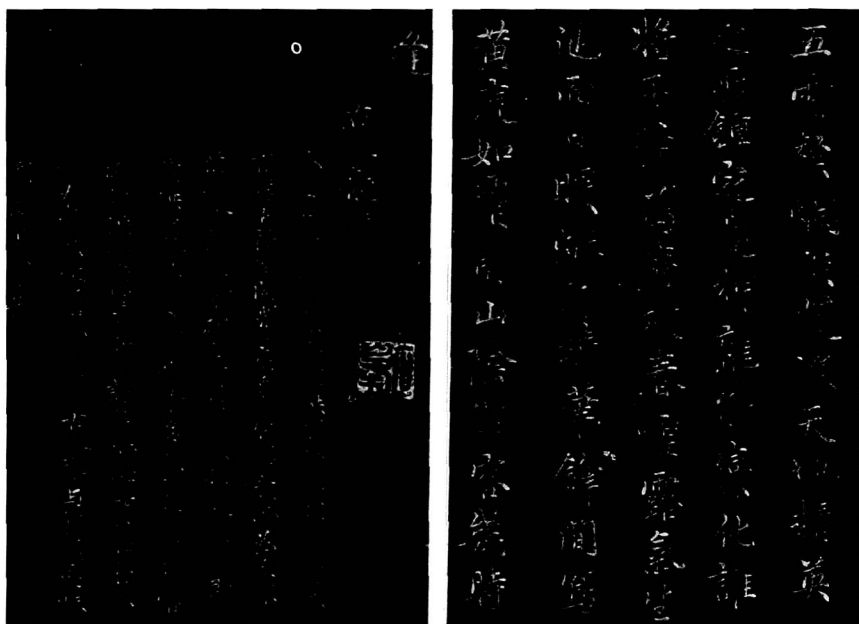


圖 2. 한호, 〈九龍硯과 識文〉, 黑紙金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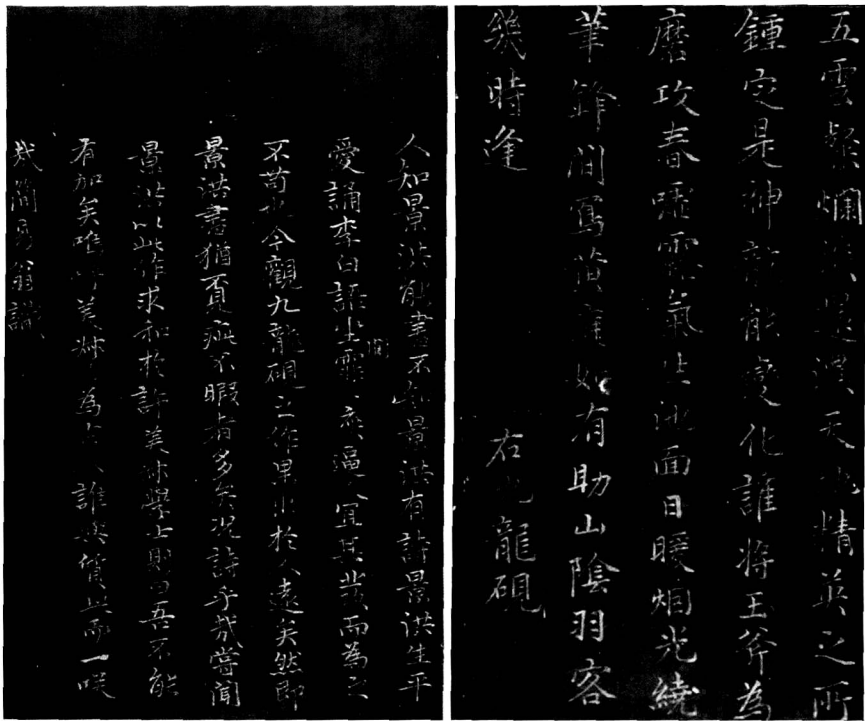


圖 2-1. 한호, 〈九龍硯帖 識文〉, 1602년 黑紙金泥 19.4×12.2 『韓石峯筆帖』,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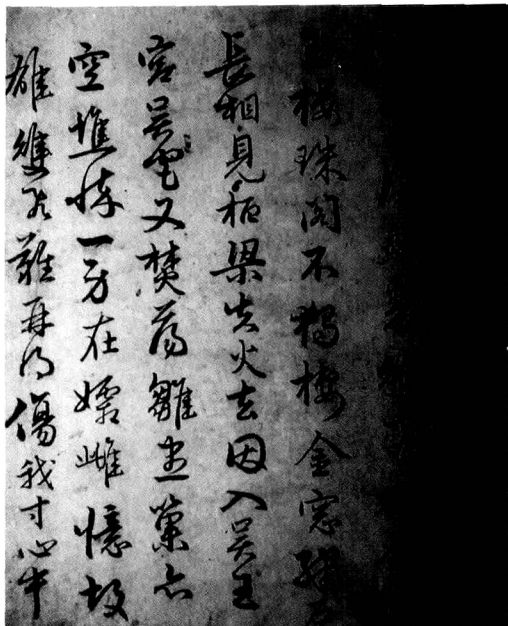


圖 2-2. 한호, 〈雙燕離〉, 紙本墨書 帖裝, 개인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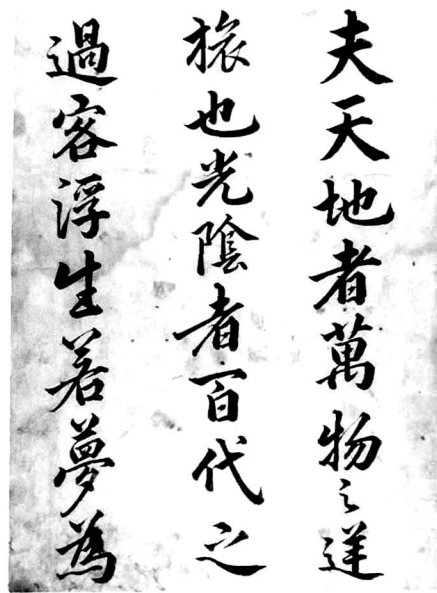


圖 2-3. 한호, 〈春夜宴桃李園序〉 제1면, 紙本
묵서 42×28.2cm 線裝, 채수황 소장.

五雲燦爛淡還濃 天地精英之所鍾 定是神龍能變化 誰將玉斧爲磨攻 春嘯露氣生池面 日暖烟光繞筆鋒
 間寫黃庭如有助 山陰羽客幾時逢

右九龍硯 「石峯」

人知景洪能書，不知景洪有詩。景洪生平愛誦李白，語坐間霏霏，奕逼人宜，其發而爲之不苟也。今觀九龍硯之作，果出於人，遠矣。然即景洪書，猶覓疵不暇者，多矣，況詩乎哉。嘗聞景洪以此作，求和於許美叔學士，則曰吾不能有加矣。嗚呼，美叔已爲古人，誰與質此而一啖哉。簡易翁識。

위 칠언율시는 한호가 宣祖로부터 하사받았던 벼루에 대한 감흥을 읊은 시로 여겨진다(圖 2)。⁵⁾ 이 글씨와 관련하여 한호가 『한경홍진적』의 필사를 시작하기 직전인 1602년 6월 이와 동일한 형식으로 시문 세 편을 최립에게 써준 예가 있는데 그 가운데 「구룡연」이 있어 주목된다(圖 2-1)。⁶⁾ 이를 보면 앞서 한호가 최립의 서문을 받은 뒤 후세에 남길 본격적인 필사를 계획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며, 또 1602년 6월의 서첩과 『한경홍진적』 모두가 최립에게 써준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하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한경홍진적』의 시문 가운데 최립과 관련 있는 예가 많기 때문이다.

여하튼 자작시에서 한호는 옥토끼(玉兔)로 비유된 癸卯生의 자신을 옥도끼(玉斧)란 시어로 써 은근히 비유하면서 왕희지가 산음의 도사를 찾아가 자신이 쓴 黃庭經(道德經이라고도 함)을 그의 흰 거위와 바꾸었다는 換鵝故事처럼 자신도 언젠가 山陰羽客을 만나리라는 포부를 나타냈다. 이런 바램은 그의 行狀에도 적혀 있듯이 왕희지의 精妙한 필법에 이르려는 한호의 일생목표였다고 할 수 있다.⁷⁾

한호시에 이어 필사된 崔崧의 識文에는 한호의 시인적 자질과 李白(701-762)을 좋아하는 문학적 취향에 관해 언급되어 있다. 오늘날 전하는 한호의 몇몇 詩와 그가 知遇들과 함께 唱和

- 5) 許筠, 『惺所覆瓿藁』 卷24 說部3 「惺翁識小錄」下, “石峯嘗以唐牋, 寫太白詩爲五卷, 眞行大小, 各體皆備, 極其精力. 又以大紙, 書東書堂集古帖, 一一臨擲, 無不酷似, 誠皆至寶也. 先王聞之, 亟命中使往還之, 盡數入內. 翌日賜細布鹽米紙筆墨硯衣靴等物甚厚, 因以置舍居之.”
- 6)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물번호 德3251, 24.2×16.7cm 帖裝. 내용은 『周易』 「繫辭傳」(圖 10-1), 한호시 「九龍硯」과 최립 識文, 최립시 「記夢」이다. 「계사전」은 天地에 나타난 乾坤의 이치를 체득함에 대한 것으로 최립의 당호 簡易의 출전을 쓴 것이다(『周易』 「繫辭上傳」 第1章, “乾知大始, 坤作成物. 乾以易知, 坤以簡能. 易則易知, 簡則易從, 易知則有親, 易從則有功, 有親則可久, 有功則可大, 可久則賢人之德, 可大則賢人之業. 易簡而天下之理, 得矣, 天下之理, 得而成位乎其中矣.”). 「기몽」은 최립이 1598년 松都에서 彩筆을 꿈꾸고 1599년 西都에서 鏡墨을 꿈꾼 뒤 지은 시로 두 벗 石陽正 李霆(1541-?)과 한호를 그린 시로 추측된다(崔崧, 『簡易集』 卷8 西都錄 「記夢」, “前年正月客松京 夢得彩筆非常靚 今年正月在西都 復夢鏡墨多不數…我今年花甲周 有退無進者才具 白髮種種無能爲 況復昏花着阿瞶 何宜二友夢於我…”). 「계사전」·「기몽」, 말미에 각각 “壬寅(1602)六月日 石峯爲簡易書”·“爲簡易書 石峯”이라 쓰여 있다.
- 7) 한호의 行狀은 전하지 않고 단지 그의 묘갈명에 인용되어 있다. 李廷龜, 『月沙集』 卷47 「韓石峯墓碣銘并書」, “…按狀, 石峯名濩, 字景洪, 石峯其號, 五代祖大基, 谷山郡守, 祖世寬, 始家松都, 考學生彥恭, 生石峯於松都. 始生, 日者占之曰, 玉兔生東, 高洛陽之紙價, 是兒必以善書名. 少長, 能自課書, 夢王右軍授以所書者再, 由是心獨喜自負, 臨帖若有神助. 既天才又積用功, 楷額眞草, 無不各臻其妙…”

했던 자취, 그리고 明 使臣들이 그를 시인으로 대해 雅集에 참여시켰다는 기록을 통해 그의 시인적 자질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⁸⁾ 한호가 「구룡연」으로 화답을 구했다는 許筠(1551-88, 자 美叔, 호 荷谷)은 당대의 명시인으로 바로 許蘭雪軒(1563-89, 이름 楚姬)의 오빠이자 許筠(1569-1618)의 형이다. 그와의 인연으로 한호는 1582년 그의 부친 許曄(1517-80)의 神道碑를 쓰기도 하고 1605년 5월에는 遂安郡守 허균의 초청을 받아 허난설헌이 8세 때 지은 「廣寒殿白玉樓上櫟文」을 필사하기도 한다. 한편 한호의 李白愛好는 최립의 언급과 같이 매우 酷甚했던 것 같다. 현전하는 그의 필적에 이백의 시가 절대다수를 차지하며 「春夜宴桃李園序」와 같은 名文을 쓴 예가 다수라는 사실은 이를 대변해주는 예이다(圖 2-2·3).

3) 滕季達, 「小詩寄韓石峯先生」

「한석봉 선생에게 보내는 시」

한강엔 부용꽃도 많은데 이 사람은 그 꽃부리를 머금었네.
 거닐면서 밝은 달 즐기니 가을 강물은 더욱 넘쳐 흘렀지.
 달 속의 토끼를 치러 갔다가 彤管*의 城처럼 되게 하였네.
 용과 뱀이 당기듯 휘호하니 사방 벽에서 비바람소리 울렸지.
 편안히 神功을 부리니 네마리 마차를 탄 長卿**이라 하겠네.
 이에 쓰임이 크게 되었으니 어찌 遊於藝의 명성을 말하리요.

북해 등계달 진생이 도성문에서 씀.

갑술년 봄 (소주사람으로 詔使 한세능을 따라 우리나라에 임신년 겨울에 도착했다.)

小詩寄韓石峯先生

漢江多芙蓉 之子餐其英 逍遙弄明珠 秋水復盈盈 伐此月中兔 俾爲彤管城 龍蛇掣揮毫 四壁風雨鳴
 燕然勒神功 結駟稱長卿 斯用迺爲大 豈云游藝名
 北海滕季達晉生, 書于都門.

歲甲戌春 (蘇州人, 隨詔使韓世能, 到本國壬申冬.)

* 동관(彤管) : 后宮에서 政令이나 后妃의 일을 기록하는 데 쓰는 붉은 대롱의 붓.

** 長卿 : 漢 司馬相如의 字. 辭賦에 뛰어나 특히 子虛·上林 등의 賦는 漢魏六朝 문인의 모범이 됨.

8) 한호의 자작시로 『韓景洪眞蹟』의 「九龍硯」·「賜硯」, 國博소장 『石峯墨妙』(1604년경)의 「松鶴山」·「鳳凰山」·「狼子山遇燈夕」·「用青蓮寄友韻」·「高嶺」·「青石嶺」·「三柳河」·「冷泉道中」·「鐵嶺高」 등과 개인소장의 『墨跡』에 실린 「奉別金景涵如京」(1577년)·「和贈農山表知事博榮」(1602년), 『石峯書』에 실린 「贈許方伯詩」(1602년)·「次韻寄晚翠軒」, 「石峯清妙草廬詩序」와 「五松亭 六首」(1598년), 그리고 『大東詩選』 卷3의 「後西江」 등이 확인된다./ 車天輅, 『五山集』 續集 卷1 「次石峯見投韻寄與景涉行」; 李海壽, 『藥圃遺稿』 卷4 松都雜詠 「用前韻奉東臯兼呈石峯五山要和」·「臘日吟奉東臯兄要與石峯五山相和」./ 崔崑, 『簡易集』 卷6 焦尾錄 「韓景洪示滕北海季達送到琳宮雅集仍索次韻分得黎秘書民表詩」; 李濟臣, 『清江小說』(奎章閣 15176), 「韓景洪濩, 非但能書, 且工詩, 故韓敬堂·滕北海·黃葵陽, 皆以詩人待之, 琳宮雅集詩, 亦景洪賡其韻, 其見重於中原如是…»

한편 “만년에는 詩學에 통해 陶潛·柳宗元을 따랐으니 평이·광활하고 순수하며 읊는 소리도 맑고 시원했네”(許筠, 『惺所覆瓿藁』 卷15 「祭韓石峯文」, 「晚通詩學 陶柳門庭 夷曠冲粹 詠之清冷」)라는 기록으로 만년의 문학적 취향도 알 수 있다.

위 오언시의 작자 滕季達(자 晉生, 호 北海)은 1572년 겨울 明 神宗의 등극을 반포하기 위해 頒登極詔使로 내조한 한림원편수 韓世能(호 敬堂)을 따라온 사람이다. 그는 시문과 글씨를 잘해 원접사 林塘 鄭惟吉(1515-88)의 종사관 權擘(1520-93)·鄭惟一(1533-76)·柳成龍(1542-1607) 그리고 善寫로 수행한 한호와 사귀었으며, 뒤에 한호의 글씨를 얻어가지고 돌아가 명나라 문인 王世貞(1526-90)·屠隆(?-?) 등에게 보여 한호의 필명을 떨치게 했다.⁹⁾ 이 시가 바로 1574년 봄 그가 서울을 떠나면서 한호에게 보낸 서신으로 “달 속의 토끼” 즉 한호를 만난 감홍과 그의 글씨를 찬미한 내용이다(圖 3). 이런 인연 때문인지 이 시를 쓴 한호의 다른 필적도 전하며¹⁰⁾ 또 1577년 12월 使行으로 떠나는 金景涵(?)에게 보낸 奉別詩에서 그를 그리워하는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圖 3-1·2).¹¹⁾

4) 韓漢, 「賜硯」

「하사받은 벼루」

晉代의 淸眞(달속한 사람) 왕우군은 필법이 精하고 정신이 妙하니 필의는 어땠을까.
고금에 賜硯이 전한다는 말 듣지 못했으니 다만 황정경을 베껴 흰 거위와 바꿀 뿐. 「석봉」
賜硯
晉代淸眞王右軍 筆精神妙意如何 未聞賜硯傳今古 但寫黃庭換白鵝 「石峯」

이 칠언절구 역시 앞의 「九龍硯」처럼 선조로부터 하사받은 벼루에 대한 한호의 시이다(圖 4). 여기서도 한호는 왕희지 고사를 들었는데 그 시구가 李白詩 「王右軍」·「送賀賓客歸越」을 답했다. 「왕우군」은 왕희지와 산음도사의 고사를 읊은 것이고 「송하빈객귀월」은 越로 귀향하는 賀知章¹²⁾을 보내면서 왕희지 고사에 빗대어 읊은 시인데, 우연하게도 이들 시를 필사한 예

9) 許筠, 『惺所覆瓿藁』 卷24 說部3 「惺翁識小錄」 下, “石峯從林塘相, 迎韓敬堂于江上, 韓甚賞之. 滕季達從來, 得其手迹, 示王元美, 則稱可與松雪比肩, 屠長卿以爲怒猊抉石. 其名得振於中國, 亦近代人所無也.” 附錄1 「鶴山樵談」 에도 유사한 내용이 있다.

10) 이 글씨가 실린 書冊에는 「瀟湘八景」(圖 8-1), 「北闕休上書…」, 李白 「春夜宴桃李園序」(圖 2-3), 「天資豪俊仰城公帝…」, 「一拔箕城定八方…」, 「子長遊自祝融峯…」, 李白 「巴陵贈賈舍人」, 滕季達 「小詩寄韓石峯先生」의 시문 8편이 쓰여 있다. 앞뒷면의 탈락으로 표제가 없고 「소시기한석봉선생」의 마지막 세 글자가 없다.

11) 칠언절구 2수로 滕을 그리워하는 심정이 제2수 3·4구에 잘 나타난다 “奉別金景涵如京. 君歸千里童茫茫 莫嘆窮陰道路長 行到鳳城春轉好 應收光景入詩囊. 其二. 多君豪氣遠朝天 臨別觸談月正圓 如見吳州滕北海 爲言音信兩茫然. (滕氏, 諱季達, 字晉生, 號北海, 浮槎居蘇州. 韓天使到本國時有舊懷, 故及之.) 丁丑至月既望, 石峯韓漢稿.” 金星元 編, 『墨跡』 -朝鮮王朝五百歲 歷史를 創造하신 義賢들과 나의 先祖들의 書跡, 書木文庫所藏品-(서울:明文堂, 1983), p.196 참조.

12) 賀知章: 679-744. 字 季眞, 會稽 山陰人. 嗜酒·草書로 유명. 벼슬을 그만 둔 뒤 玄宗에게 「鏡湖剡川」란 시를 하사받고 태자·백관의 전송을 받으며 귀향. 만년에 더욱 誕放, 四明狂客이라 자칭하며 道士의 생활로 보냄. 『舊唐書』 卷190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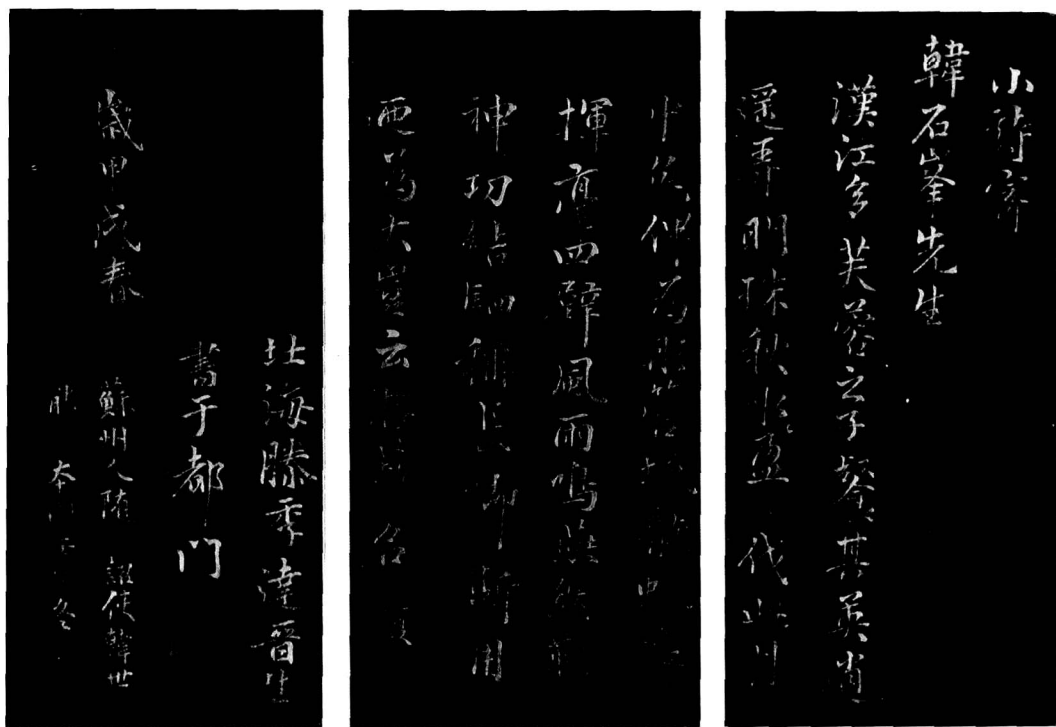


圖 3. 한호, <小詩寄韓石峯先生>, 紺紙金泥 각21×9.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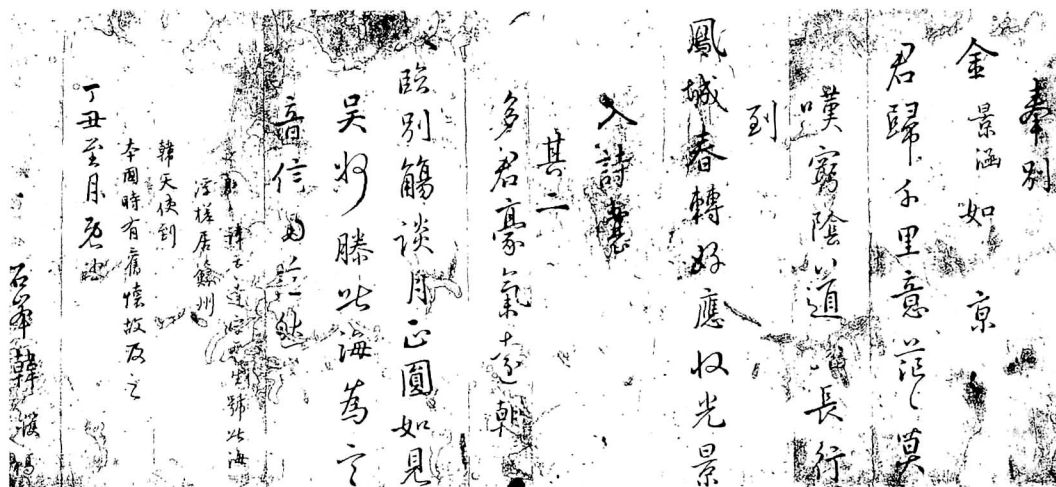


圖 3-2. 한호, <奉別金景涵如京>, 1577년 지본묵서 24×54cm 『墨跡』帖裝, 개인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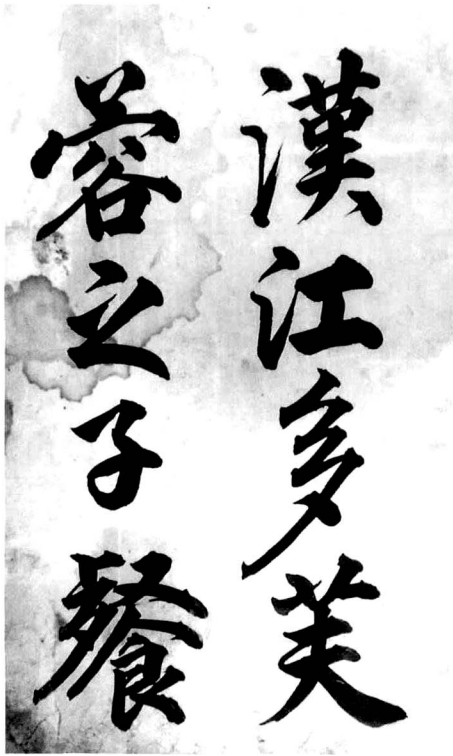


圖 3-1. 한호, 〈小詩寄韓石峯先生〉 제1면, 지본
 묵서 42×28.2cm 線裝, 채수황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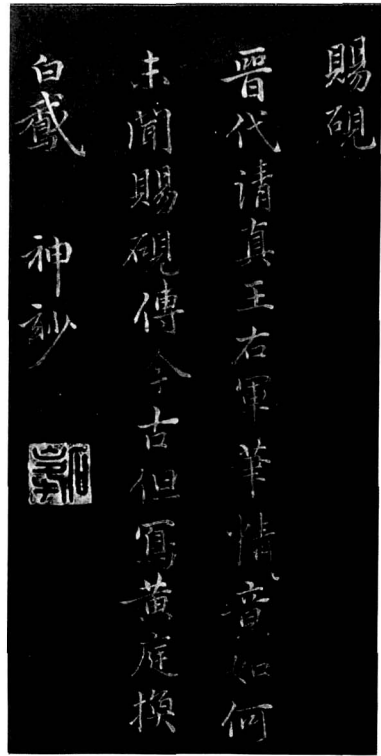


圖 4. 한호, 〈賜硯〉, 黑紙金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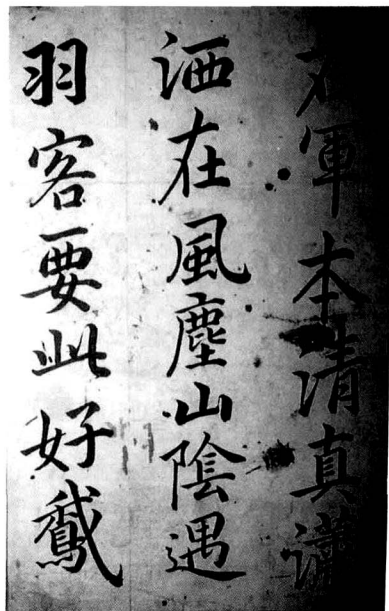


圖 4-1. 한호, 〈王右軍〉 제1면 · 〈送賀賓客歸越〉 제2면, 지본묵서 帖裝, 개인소장.

가 전하고 있어 한호의 李白愛好를 대변하고 있다(圖 4-1).¹³⁾ 그래서 한호와 교류했던 문사들이 이백의 시처럼 한호를 清真·精妙 등으로 묘사하고 鍾王·逸少·王右軍 등에 비유했던 것도 그러한 측면에서 이해된다.¹⁴⁾ 또한 자작시 「九龍硯」과 「賜硯」의 평이한 어구와 명확한 절구로 나타난 清新한 시풍도 이백을 애호했던 한호의 문학적 취향을 짐작할 만하다.¹⁵⁾

5) 崔岙, 「戲贈同行韓正郎景洪二首」

새로 지은 시를 雪兒*에게 주었더니 어여쁜 그대가 무성하게 배껴냈지.
 杜甫의 버릇은 공력을 믿지 않고 張旭의 미침은 오로지 술마시기만 일삼네.
 千里를 함께 하자 이제 다시 만났으니 잠시라도 떨어지면 서로 하지 않으리.
 여러 해 지은 古詩絶句 또한 호방하니 함께 얻은 명성은 그치지 않는다네.

세상에선 님이나 집오리로 저울질하니 그대 서법을 논하매 이러쿵 저러쿵.
 나 또한 문자에서 액운을 만났으니 옛사람을 믿고서 스승삼을 뿐이라네.
 白雪歌** 몇 곡이 이루어지매 青天紙를 펼치어 한 장으로 써내었네.
 늙은막에 마주하며 평안해진 뒤이니 몸밖의 공명은 가려지질 않는다네. 간이옹

未用新詩付雪兒 憐君寫出字森離 杜陵癖在功非聖 張旭顛全飲亦師 千里同遊今再遇 暫時若失不相爲
 年來古絶又豪放 併取聲名休怪遲
 世有重輕鷄鶩兒 論君書法故分離 吾於文字亦遭厄 但信古人能得師 白雪歌成數曲了 青天紙放一張爲
 暮年相對時平後 身外功名遮莫遲 簡易翁

* 雪 兒 : 歌舞를 잘했던 李密의 愛姬. 여기서는 최립의 친구 한호를 말함.

** 白雪歌 : 琴曲의 하나로 음률이 고상하여 부르기 어렵다고 함. 여기서는 최립의 시를 말함.

위의 칠언율시 두 수는 崔岙이 1593년(선조 26) 주청사로 명에 갔을 때 동행했던 正郎 한호에게 지어 준 것이다(圖 5).¹⁶⁾ 최립은 자신과 한호를 두보와 장옥에 비유하며 서로가 함께 있

- 13) 이 글씨가 실린 서첩에는 韓濩·白光勳·金玄成·白振南의 글씨가 있다. 그중 한호 글씨는 李白詩 「落日憶山中」·「見野草中有曰白頭翁者」·「江夏別宋之悌」, 漢 武帝 劉徹의 「秋風辭」(圖 11-1), 李白詩 「古風」 第 38首·「秋思」·「題元丹丘山居」·「雙燕離」(圖 2-2)·「王右軍」·「送賀賓客歸越」이다. 「王右軍」, “右軍本清真 瀟灑在風塵 山陰遇羽客 要此好鵝賓 掃素寫道經 筆精妙入神 書罷籠鵝去 何曾別主人”; 「送賀賓客歸越」, “鑒湖流水春始波 狂客歸舟逸興多 山陰道士如相見 應寫黃庭換白鵝”
- 14) 車天輅, 『五山集』 卷1 「題韓石峯所藏龍虎障子歌」, “…石峯墨妙鐘王流, 筆製靈鯨三島舞…”; 卷2 「石峯之子韓敏政見訪醉贈一律」, “石峯精妙逼清真 豈料寧馨子敬親…”; 卷3 「送韓石峯赴加平郡二首」, “多君絕筆擅修能, 聖主憐才借股肱, 吳會山川輸逸少, 當塗草木識陽川…”; 吳允謙, 『秋灘集』 卷1 「韓石峯橋榴軸(石峯筆法精妙, 壬寅詔使時, 以善書, 將赴遠接使幕下…)»; 李民成, 『敬亭集』 卷4 「題韓石峯帖」, “假令石峯遇鍾王, 見許優爲弟子行…”; 李安訥, 『東岳集』 卷3 「奉贈韓石峯二十四韻」, “吾愛韓夫子, 今時王右軍…”
- 15) 李廷龜, 『月沙集』 卷17 「韓石峯新赴歙谷…漫書贈之」, “人於韓石峯, 但稱書絕倫, 吾愛其句法, 往往多清新…” 卷47 「韓石峯墓碣銘并序」, “…爲詩獨慕李白, 往往頗有趣…”
- 16) 崔岙, 『簡易集』 卷6 癸巳行錄 「戲贈同行韓正郎景洪二首」. 앞뒤의 시로 보아 의주 근처에서 지은 것으로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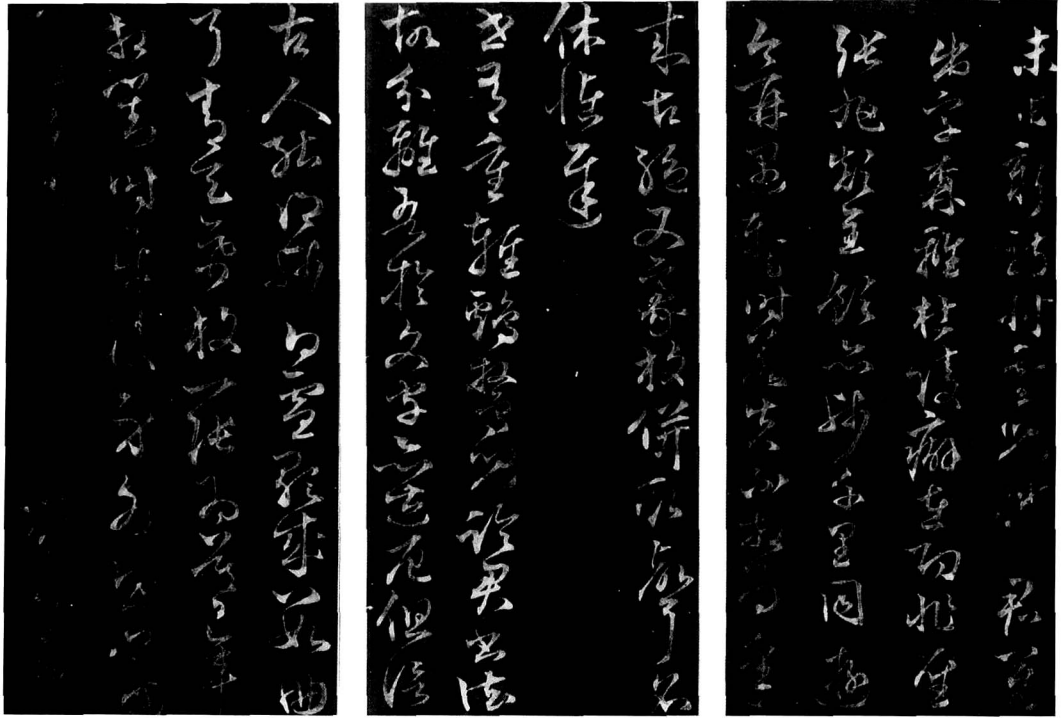


圖 5. 한호, 〈戲贈同行韓正郎景洪二首〉, 紺紙金泥 各21×9.5cm.

어야 글과 글씨가 이루어진다고 하면서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사이임을 나타냈다. 또 자신들에 대한 世評이나 필명으로 얻은 功名은 쓸데없는 것이라고 하면서 모처럼 동행한 기쁨을 잘 나타냈다. 『한경홍진적』에서 최립의 시문을 여러 편 필사한 것도 그러한 兩人의 인연을 보여주는 것이며 한호 역시 명문장가로서 최립의 명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6) 杜甫, 「楊殿中示張旭草書」

斯人已云亡 草聖秘難得 及茲煩見示 滿日一悽惻 悲風生微絹 萬里起古色 鏘鏘鳴玉動 落落群松直
 連山蟠其間 溟漲與筆力 有練實先書 臨池真盡墨 俊拔爲之主 暮年思轉極 未知張王後 誰竝百代則
 嗚呼東吳精 逸氣感清識 楊公拂篋笥 舒卷忘寢食 念昔揮毫端 不獨觀酒德
 右杜甫作楊殿中示張旭草書

인다. 당시 최립에 앞서 謝恩使로 떠난 黃璉(1542-1606)이 국경에서 배회하자 정세의 위급을 알리고 원군과 군량을 주청하기 위해 최립이 급파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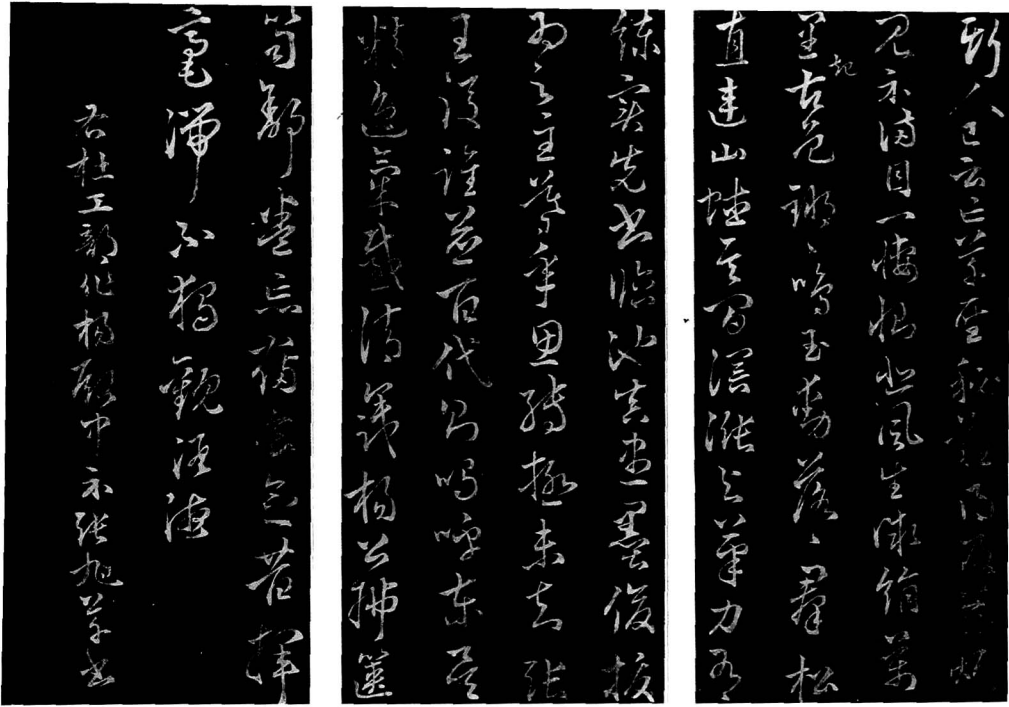


圖 6. 한호, <楊殿中示張旭草書>, 紺紙金泥 各21×9.5cm.

이 오언시는 殿中監(황제 의복을 맡는 직책) 楊炎이 두보에게 張旭의 초서를 내보이자 그 감회를 읊은 것이다(圖 6).¹⁷⁾ 장옥은 奔放한 운필의 狂草로 유명하고 또 술도 잘해 李白·賀知章 등과 함께 '酒中八仙'으로 불렸다. 앞의 최립의 시 「戲贈同行韓正郎景洪二首」에서 한호를 장옥에 비유했듯이 이백을 좋아하고 술마시기를 즐겼던 한호가 장옥에 대해 호감을 가졌다는 것은 직감되는 바이다. 그래서 宣祖가 가평군수로 떠나는 한호에게 “醉裏乾坤 筆奪造化”라는 御筆을 써주면서 글씨에 열중하라고 했다거나 한호가 음주를 잘해 흥취가 일면 쉬지않고 읊조리며 휘호했다는 기록은 이러한 측면에서 이해된다.¹⁸⁾ 原詩의 내용을 살려 날카로운 필봉과 생동감있는 운필을 구사한 秀作의 초서라 하겠다.

17) 『杜少陵詩集』卷15, 「殿中楊監見示張旭草書圖」. 『漢詩大觀』(東京:井田書店, 1943) 三, p.1330 참조. 이 시는 이백의 「王右軍」·「送賀賓客歸越」(圖 4-1)과 함께 명필에 대한 시로 널리 애송되었다. 이들 시는 王世貞의 『王氏法書苑』卷29에도 「王右軍」·「送賀監」·「殿中楊監示張旭草書圖」란 제목으로 실려 있다.

18) 李廷龜, 『月沙集』卷47 「韓石峯墓碣銘并序」, “…先王嘗見其大字, 歎曰, 奇壯不可測也, 遣中使錫宴于家, 又命除閑郡, 諭之曰, 必要爾書者, 欲使筆法傳於後世, 倦時無強作, 勿怠勿迫. 又御書醉裏乾坤筆奪造化八字賜之…石峯爲人敦重寡言, 善食酒, 遇輒陶然自適, 吟灑不倦…”

〈第2帖〉

7) 王世貞, 詩話·「采石江謁李白祠」

五言絕句, 以調古爲上, 以情眞爲得體, 卷中惟王維名家可法, 次則孟浩然. / 五言律詩, 貴乎沈實溫麗, 雅正清遠, 含蓄深厚, 有言外之意, 制作平易, 無難艱之患, 最不宜輕浮俗濁, 則成小人對屬矣. 似易而實難, 又須風格峻整, 音律雅渾, 字字精密, 乃爲得體, 唐初唯杜審言, 創造工緻, 盛唐老杜神妙, 外唯王維孟浩然岑參三家造極, 王之溫厚, 孟之清新, 岑之典麗, 所謂員不可規 方不可矩也. / 七言律詩, 務在雄渾, 富麗之中, 有清沈微宛之態, 故明白條暢, 而不疎淺優, 游含泳而不輕浮, 最忌俗濁纖巧, 則失古人風調矣. 盛唐唯王岑高李, 最得正體, 足爲規矩, 後之學者, 不曉音調, 學雄渾者, 必枯硬, 學清沈者, 必軟腐而歸於庸俗矣.

太白五七言絕句, 實唐三百年一人. 歌行之妙, 詠之使人飄揚欲仙者, 太白也, 慷慨激烈, 歔歔欲絕者, 子美也. 選體太白多露語率語, 子美多穉語累語. / 五言律, 七言歌行, 子美神矣, 七言律聖矣. / 五七言絕, 太白神矣, 七言歌行聖矣, 五言次之. 太白七言律, 子美七言絕, 皆變體, 間爲之可耳, 不足多法也. / 太白古樂府, 窈冥憺愴, 縱橫變幻, 極才人之致, 然自是太白樂府. 太白不成語者少, 老杜不成語者多. 弇州山人王世貞元美, 官至南京刑部尙書.

苔墀擁立壁 遺像挂蠨蛸 誦亦天門句 不風江自濤 千秋無正始 一代見才豪 三山雲作供 姑熟水爲醪
霞明銅官日 天墮宮錦袍 那能不相待 空自躡金鼈 / 采石江謁李白祠 「石峯」

위는 明 王世貞(1526-90, 자 元美, 호 鳳洲·弇州山人)이 唐詩에 대해 논설한 詩話와 그의 오언시 한 수를 쓴 것이다(圖 7).¹⁹⁾ 왕세정은 詩·古文에 뛰어나 李攀龍(1514-70)과 함께 문단을 이끌었으며 이반룡 사후 20여년간 독주했던 문인이다. 왕세정의 학문에 대해서는 당시 使行 등을 통해 우리나라에 알려져 있었는데 최립은 바로 그의 文學風에 영향받은 사람이었다.²⁰⁾ 따라서 최립으로부터 문학에 대한 이해를 넓혔던 한호가 자신의 글씨를 호평해 준 왕세정의 學藝에 관심을 가졌음은 짐작되는 바이다. 이런 점에서 오언·칠언시의 법식과 이백·두보의 장단점을 논한 왕세정의 시론과 채석강의 이백사당을 참배한 감흥을 읊은 왕세정의 시를 필사한 것은 한호의 文學傾向과 李白愛好를 함께 나타낸 것이라고 하겠다.

19) 王世貞의 『弇州山人四部藁』 正稿 174卷(賦·詩·文·說 4部)은 그가 鄖陽巡撫 재직시 自刊했고, 續稿 207卷(賦·詩·文 3部)은 致仕後 만년작을 모아 아들 王士駿에게 준 것을 崇禎年間に 손자가 간행했다. 한호가 필사한 詩話 가운데 五七言의 詩形式에 관한 부분은 『藝苑卮言』(正稿 說部 卷144-155, 12卷) 卷3의 구절과 유사하나 동일한 구절은 없다. 이백과 두보에 관한 부분은 권4에 실려 있다. 왕세정의 시는 詩部 卷32, 「采石謁李白祠」이다. 한호는 “弇州山人王世貞元美,…”이라고 왕세정의 이름을 誤記했다.

20) 최립은 1577·81·93년 주청사 質正官으로, 1594년에는 주청부사로 갖다오는 등 잦은 使行를 통해 당시 명나라 文藝界의 중심세력이던 王世貞 일파의 文學風을 수용했던 사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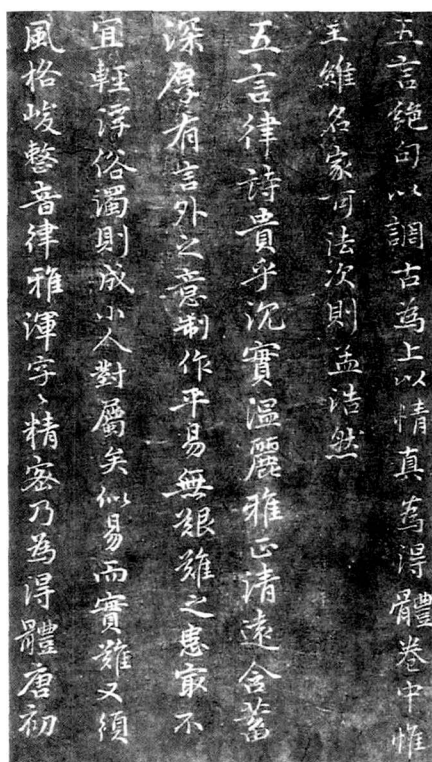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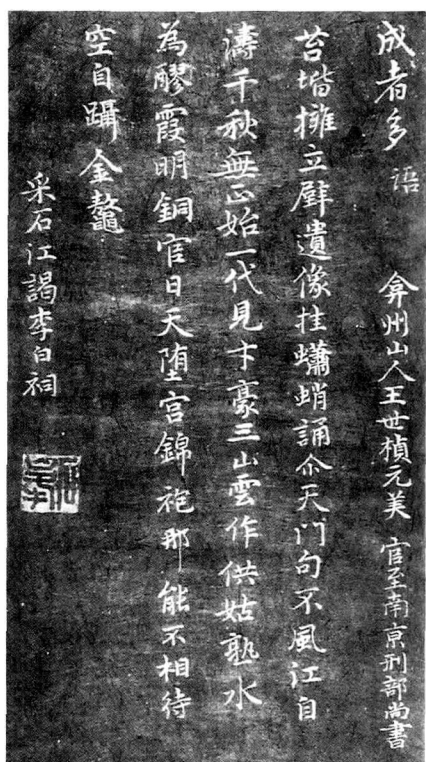


圖 7. 한호, 〈王世貞 詩話·采石江謁李白祠〉 제1·5면, 黑紙金泥 각22×12.4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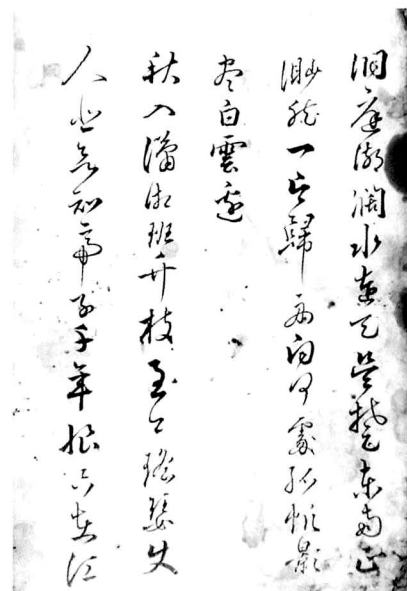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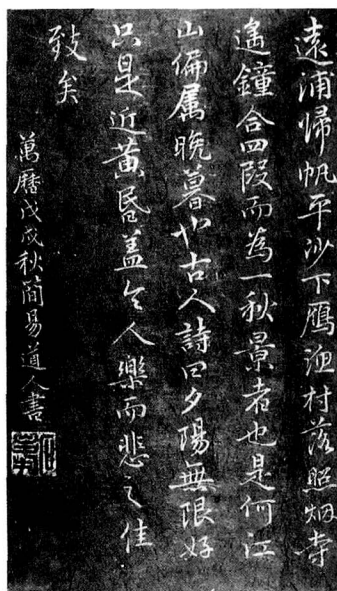


圖 8. 한호, 〈散畫識〉,
 黑紙金泥 22×12.4cm.

圖 8-1. 한호, 〈瀟湘八景〉 제5면, 지본묵서
 42×28.2cm 線裝, 채수황 소장.

8) 崔崧, 「散畫識」

원포귀범·평사하안·어촌낙조·연사요종을 네 단으로 합쳐 하나의 가을경치를 그린 것이다. 이 무슨 강산이기에 늦은 저녁으로만 부탁했는가 하면, 옛사람의 시에 “석양은 한없이 좋으나 다만 황혼에 가깝네”라고 했듯이 사람을 즐겁게 하고 슬프게 하는 아름다운 경치이기 때문이다.

만력 무술년(1598) 가을 간이도인 씌. 「석봉」

遠浦歸帆·平沙下鴈·漁村落照·烟寺遙鐘, 合四段而爲一秋景者也. 是何江山, 偏屬晚暮也, 古人詩曰, 夕陽無限好, 只是近黃昏, 蓋令人樂而悲之佳致矣.

萬曆戊戌秋, 簡易道人書. 「石峯」

위는 1598년 최립이 懶翁 李楨(1578-1607)에게 부탁한 그림에 대한 識文이다(圖 8).²¹⁾ 瀟湘八景 가운데 늦은 저녁을 묘사한 네 경치를 골라 한 폭에 그리도록 부탁했다는 점에서 60세 나이의 노경에 접어든 최립의 심정이 엿보이는 글이다. 이정은 李崇孝의 아들로 최립에게 시문을 배웠고 許筠(1569-1618)과 깊은 교유를 했던 화가였는데, 한호 또한 許筠과의 교유로 그의 아우인 年下의 허균과 교류했으므로 한호와 이정의 교류는 충분히 짐작된다.²²⁾ 이런 점에서 한호가 이 글을 필사하여 최립·이정과의 인연을 담고자 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관련하여 한호가 필자미상의 칠언시 「瀟湘八景」 여덟 수를 필사한 예는 차후 연구자료가 될 것이다(圖 8-1).

9) 司馬遷, 『史記』 「高祖本紀」

五年, 高祖與諸侯兵共擊楚軍, 與項羽決勝垓下. 淮陰侯將三十萬自當之, 孔將軍居左, 費將軍居右, 皇帝在後, 絳侯柴將軍在皇帝後. 項羽之卒可十萬. 淮陰先合, 不利, 却. 孔將軍費將軍縱, 楚兵不利, 淮陰復乘之, 大敗垓下.

위는 기원전 202년 漢 劉邦이 제후들과 함께 楚 項羽의 군사를 垓下에서 쳐서 승리하는 대목이다(圖 9).²³⁾ 이러한 필사는 역사적 인물에 대한 관심을 나타낸 예라 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최립이 『漢史列傳抄』 3권을 짓고 『史漢一統』 16권을 편집한 사실이 주목된다. 『한사 열전초』는 班固의 『漢書』 열전과 사마천의 『史記』 열전을 초록한 것으로서 1권은 「漢書傳抄」

21) 崔崧, 『簡易集』 卷3 「散畫識」 倩李楨作一幅, “漁村落照·烟寺昏鐘·遠浦歸帆·平沙落鴈, 合四段而爲一秋景者也. 是何江山佳致, 偏屬晚暮也. 古人詩曰, 夕陽無限好, 只是近黃昏, 蓋令人樂而悲之矣.” 밑줄친 바와 같이 四景의 순서와 글자가 다르고 “佳致”의 위치가 상이한데 이는 아마도 간행시의 錯簡인 듯하다. 현존하는 『간이집』은 최립의 自編原稿를 1631년 교서관에서 활자로 간행한 것이다.

22) 陳準鉉, 「懶翁 李楨 小考」, 『서울大學校 博物館 年報』 4(서울大學校博物館, 1922), pp.5-9 참조.

23) 『史記』 卷8 「高祖本紀」 第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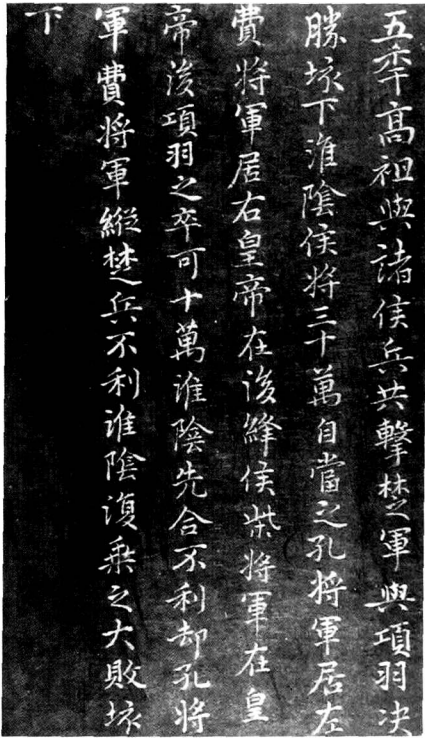


圖 9. 한호, <漢 高祖本紀>, 黑紙金泥 22×12.8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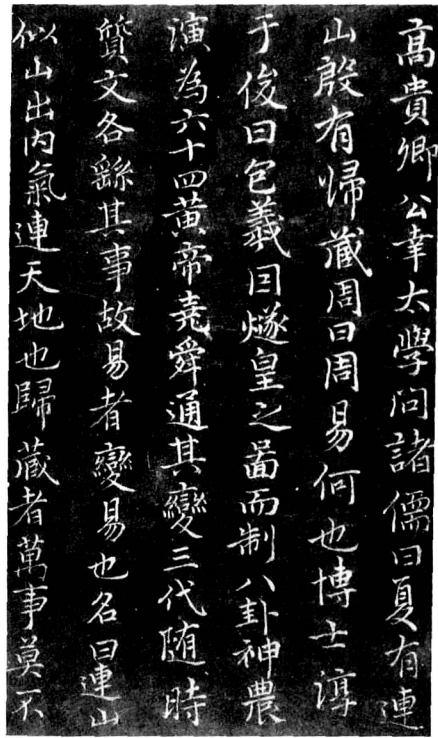


圖 10. 한호, <魏 三少帝紀>, 黑紙金泥 22×12.8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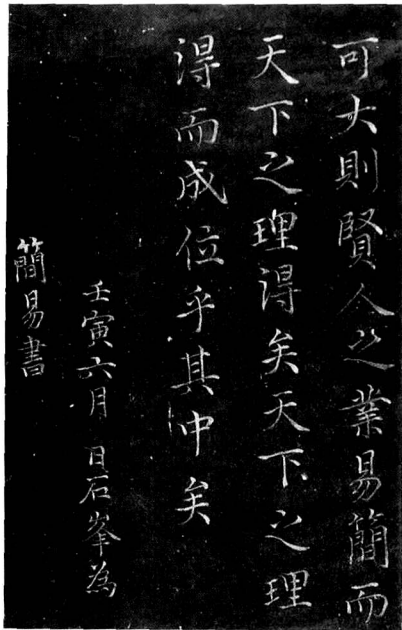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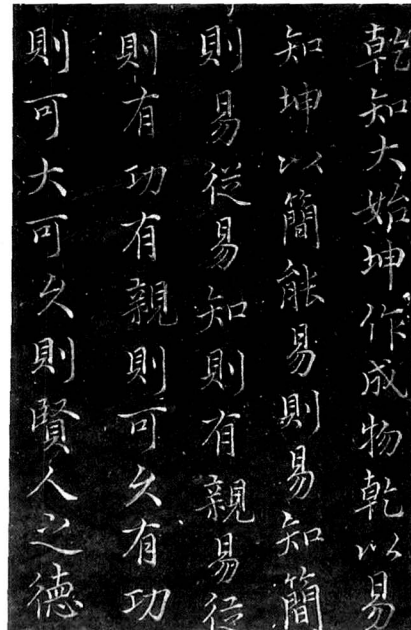


圖 10-1. 한호, <繫辭傳 旬節>, 1602년 黑紙金泥 各18.8×11.8cm 『韓石峯筆帖』,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이고 2·3권은 「漢史傳抄」이며, 『사한일통』은 『한서』와 『사기』의 내용을 相考하여 초록한 책이다. 최립의 이러한 초록작업은 古文과 史書에 대한 깊은 관심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필사 한호에게도 적지않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짐작된다.²⁴⁾

10) 陳壽, 『三國志』 魏書 「三少帝紀」

高貴卿公, 幸太學, 問諸儒曰, 夏有連山, 殷有歸藏, 周有周易, 何也. 博士淳于俊曰, 包羲因燧皇之圖而制八卦, 神農演爲六十四, 黃帝堯舜通其變, 三代隨時, 質文各繇其事. 故易者, 變易也. 名曰連山, 似山出內氣, 連天地也, 歸藏者, 萬事莫不歸藏於中.

위는 魏의 네번째 임금 高貴卿公²⁵⁾이 256년 4월 병진일에 태학으로 행차하여 『易』·『尙書』·『禮記』에 관해 諸儒와 문답한 내용 가운데 『역』에 관한 부분이다(圖 10).²⁶⁾ 이 史書의 필사는 필사 『역』에 대한 관심을 표현한 예일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최립이 『易』에도 깊은 관심을 두어 『周易本義口訣附說』을 지은 사실이 주목된다. 이 책은 朱子の 『주역본의』에 한글로 구절을 달고 설명을 붙인 것으로 선조의 명에 따라 周易校正廳에서 일을 시작하여 간성군수로 재직할 때인 1603-05년에 완성한 것이다.²⁷⁾ 한호가 이를 필사한 시기는 바로 최립이 이 책의 간행을 위해 연구작업에 몰두했던 시기였다. 이와 관련하여 앞서 언급했듯이 1602년 6월 한호가 최립의 당호인 簡易의 출전 「繫辭傳」 구절을 써준 것도 이런 시각에서 보면 의미있게 이해될 것이다(圖10-1, 주6 참조).

11) 漢 高祖, 「大風歌」

大風起兮雲飛揚 威加海內兮歸故鄉 安得猛士兮守四方

「대풍가」는 漢 高祖 劉邦이 布軍을 會甄에서 공격한 뒤 귀환하는 길에 고향 沛에 머물렀을 때 죽은 아내의 父兄을 불러 주연을 베푼 자리에서 술이 얼큰하자 지어 부른 노래이다(圖

24) 『光海君日記』 卷55, 4年 7月 癸卯, “前同知中樞府事崔岙卒, …益肆力於文章, 讀班史數千遍, 遂成一家. …其文始取法於班固韓愈, 以爲至工, 晚乃酷喜歐子文. …”

25) 재위 254-260. 名 髦, 字 彥士. 魏 文帝 曹丕의 손자, 東海定王 曹琳의 아들. 244년 郟縣高貴卿公에 봉해졌고 齊王 曹芳이 폐위되자 公卿들의 옹립으로 즉위함.

26) 『三國志』 卷4, 魏書4 「三少帝紀」 ‘高貴卿公髦’ 條. 『한경홍진적』에서 한호는 “高貴卿公”이라 誤記했다.

27) 『光海君日記』 卷55, 4年 7月 癸卯, “前同知中樞府事崔岙卒, …沈潛易學, 自以爲深得本旨, 宣廟朝授周易校正之任, 不肯拜, 上疏乞便邑, 以卒其業, 遂得杆城郡, 至官專意成書. …” 崔岙, 『簡易集』 卷1 「周易本義口訣附說投進疏」 참조.

11).²⁸⁾ 앞서 유방이 항우를 물리치는 『史記』 「高祖本紀」의 대목을 필사했던 것과 같이 역사적 인물에 대한 한호의 취향을 짐작케 한다. 壯快한 풍격을 지닌 「대풍가」는 悲壯한 풍격을 지닌 항우의 「垓下歌」(力拔山兮氣蓋世…)와 함께 옛부터 널리 애송된 노래이다. 또 이들과 함께 漢武帝가 河東(산동성)에 行幸하여 后土神에게 제사한 뒤 기쁜 마음으로 장안을 돌아보고 汾水를 건너는 배 위에서 신하들과 어울려 읊은 「秋風辭」도 널리 애송되었다.²⁹⁾

「대풍가」를 지은 高祖와 「추풍사」를 지은 武帝는 漢나라를 창업하고 중흥시킨 황제들로 그들의 行歷은 옛부터 숭상의 대상이었다. 특히 전란 후 국가중흥을 염원하던 조선에서는 역사상의 中興祖에 대한 숭앙심이 고조되었고 이에 따라 그들의 치적이 실린 『사기』·『한서』 등의 史書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기도 했다. 이런 점에서 한호가 「대풍가」·「추풍사」를 필사한 것은 당시의 時代觀을 반영한 예로 볼 수 있다. 또 安祿山의 亂을 평정했던 唐 肅宗의 치적을 기린 「大唐中興頌」(元結 撰)을 쓴 것도 그런 측면에서 이해된다(圖 11-1·2). 한편 「추풍사」가 人生無常도 함께 읊은 것이라는 점에서 전란 후 혼란했던 시기에 당시 士類間에 팽배했던 人生觀을 반영한다고도 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경우로 짧은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는 방안을 제시해 준 이백의 「春夜宴桃李園序」가 자주 애송되었던 것도 그런 예의 하나이다(圖 2-3 참조).

12) 作者未詳, 『華嶽志』·李白, 「初出金門尋王侍御不遇詠壁上鸚鵡」

이백이 화산 낙안봉에 올라 말하기를 “이곳의 호홉하는 기세는 帝位와 통하는데 謝朓의 놀라운 시를 가져오지 않았으니 그저 머리를 긁적이며 푸른 하늘에 물어볼 뿐이다”라고 하였다.

떨큰 깃으로 대궐을 사직하니 외로운 새소리 수놓은 옷을 꾸짖는 듯.

能言이 결국에 버림을 받았으니 차라리 隴西** 쪽으로 날아가 버리리. 「석봉」

李白登華山落鴈峯曰, 此處呼吸之氣, 想通帝坐, 恨不携謝朓驚人詩來, 搔首問青天爾.

落羽辭金殿 孤鳴咤綉衣 能言終見棄 還向隴西飛 「石峯」

* 謝朓 : 464-499. 자 玄暉. 南朝 齊의 시인·명사.

** 隴西 : 陝西省 隴縣의 서쪽. 변방이 험한 지역을 말함.

28) 『史記』卷8 「高祖本紀」第8, “十二年十月, 高祖已擊布軍會甄, 布走, 令別將追之. / 高祖還歸, 過沛, 留. 置酒沛宮, 悉召故人父老子弟縱酒, 發沛中兒得百二十人, 教之歌. 酒酣, 高祖擊筑, 自爲歌詩曰, 大風起兮雲飛揚, 威加海內兮歸故鄉, 安得猛士兮守四方, 令兒皆和習之. 高祖乃起舞, 慷慨傷懷, 泣數行下…”

29) 이들에 관한 王世貞의 논설이 혹 한호의 이해를 넘겼을지도 모른다. 王世貞, 『藝苑卮言』卷2, “大風三言, 氣籠宇宙, 張千古帝王赤幟, 高帝哉. 漢武帝故是詞人, 秋風一章, 幾於九歌矣. 思李夫人賦, 長卿下, 子雲上, 是耶非耶. 三言精絕, 落葉哀蟬, 疑是賡作, 幽蘭秀簪, 的爲傳語. / 大風安不忘危, 其羈心之存乎. 秋風樂極悲來, 其懷心之明乎. 文中子贊二帝語, 去孔子不遠. / 垓下歌, 正不必以虞兮爲嫌, 悲壯烏咽, 與大風各自描寫帝王興衰氣象, 千載而下, 惟曹公山不厭高, 老驥伏櫪, 司馬仲達天地開闢, 日月重光語, 差可嗣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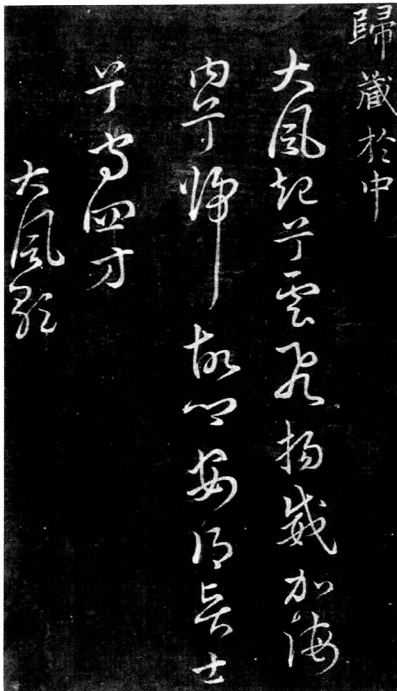


圖 11. 한호, 〈大風歌〉, 黑紙金泥
21.5×12.3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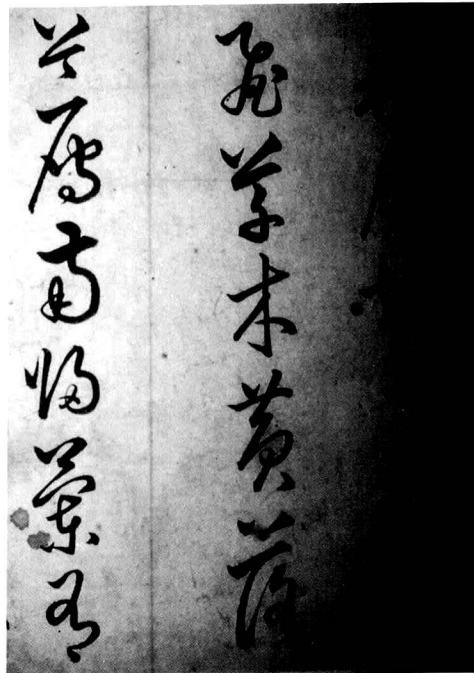


圖 11-1. 한호, 〈秋風辭〉 제1면, 지본묵서 帖裝,
개인소장.



圖 11-2. 한호, 〈大唐中興頌〉 제1면, 木刻本
35.1×20.5cm, 서울대학교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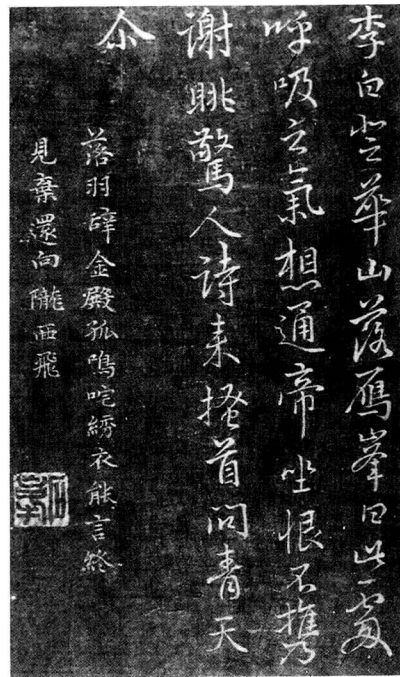


圖 12. 한호, 〈『華嶽志』·李白詩〉,
黑紙金泥 22×12.6cm.

위는 李白이 섬서성 華山(일명 西嶽·太華山)의 남쪽 봉우리인 낙안봉에 올라 뛰어난 산세를 언급한 『華嶽志』의 구절과 이어 이백의 시 「初出金門尋王侍御不遇詠壁上鸚鵡」이다(圖 12).³⁰⁾ 이백의 시는 벼슬에서 물러나면서 王侍御(?)를 찾아갔으나 못만나자 能言 때문에 결국 버림받은 자신을 꾸짖으며 차라리 변방인 隴西로 가겠다고 읊은 것이다. 『화악지』에 실린 이백의 말과 도성을 떠나면서 읊은 이백의 시가 어떤 관계인지는 살피지 못했지만, 혹 이를 필사한 시가 흡곡현령으로 재임하던 어느 때라면 근처 금강산의 뛰어난 산세를 바라보며 筆名으로 인해 僻地에 머물고 있던 자신을 빗댄 寓意的 표현일 수도 있다. 여하튼 화악의 壯大한 산세와 이백의 비장한 각오를 나타낸 점에서 한호의 취향에 맞았을 것이다.

13) 劉義慶, 『世說新語』

壹公說經吳值雪曰, 風霜固所不論, 乃先集其慘愴, 郊邑正自飄瞥林出, 便已皓然. 司馬太傅歎, 天月明淨, 都無纖翳, 謝景重謂, 不如微雲點綴, 則曰, 乃欲滓穢太清耶. 張季鷹在洛, 見秋風起, 因思吳中菰菜羹鱸魚膾曰, 人生貴得適意爾, 遂命駕便歸. 郗超每聞高尚隱退者, 輒爲辨百萬資, 并爲造立居宇, 在剡爲戴公, 起宅甚精整. 王子猷嘗暫寄人空宅住, 便令種竹, 或問暫住何煩爾, 卽指竹曰, 何可一日無此君. 阮光祿在東山, 蕭然無事, 常問足, 王右軍曰, 此君近不驚寵辱, 雖古之沈冥, 何以過此. 王處仲每酒後微詠老驥伏櫪, 志在千里, 烈士暮年, 壯心不已, 以如意, 打唾壺盡缺. 郭景純詩, 林無靜樹, 川無停流, 阮孚云, 泓崢蕭瑟, 實不可言, 每誦此文, 覺神超形越. 次道, 使人欲傾家釀, 清風朗月, 每思玄度. / 甲辰四月八日書. 「石峯」 簡文入華林園曰, 會心處不必在遠, 翳然林水, 便有濠濮間想也, 覺魚鳥自來親人. 人問顧長康會稽山川之美, 卽云, 千岳競秀, 萬壑爭流, 草林蒙籠其上, 若雲興霞蔚. 王子猷云, 從山陰道上行, 山川自相映發, 使人不暇應接, 若秋冬之際, 尤難爲懷. 荀中郎登北固望海云, 雖未觀三山, 便自使人有凌雲意, 若秦漢之君, 必褰裳濡足. 康僧淵, 立精舍, 旁連嶺帶長川, 芳林列於軒庭, 清流激於堂宇, 乃閒居研講, 希心理味.

위는 南朝 宋의 臨川王 劉義慶(403-444)이 후한~동진의 逸事瑣語를 모아 36편으로 정리한 『세설신어』(원명은 『世說』) 중에서 清淡棲逸하고 高邁不羈했던 晉代名士들의 佳事佳語를 골라서 쓴 것이다(圖 13).³¹⁾ 그런데 이들 대부분이 왕희지의 집안사람이거나 교유가 있었고 또

30) 『華嶽志』, “嶽頂南峯曰落雁峯, 以在嶽之中, 亦曰中峯. 唐李白登落雁峯曰, 此峯最高, 呼吸之氣, 想通帝座, 恨不攜謝朓驚人詩來, 搔首問青天耳. 峯頂有黑龍潭, 仰天池, 歲早祈禱多應.” 『中國古今地名大辭典』(臺北:商務印書館, 1982), p.1054 재인용. 밑줄은 『한경홍진적』에서 誤記한 부분이다./ 『李太白詩集』 卷2, 「初出金門尋王侍御不遇詠壁上鸚鵡」. 『漢詩大觀』 二(東京:井田書店, 1943), p.1074 참조.

31) 『世說新語』는 梁 劉孝標의 주석본(上中下 3卷)으로 전한다. 『四部備要』 子部 『博物志·世說新語』(臺北:中華書局)를 참조. 『한경홍진적』에 필사된 내용은 그중 13구를 골라 32자로 정리한 것이다(“단 郗超…”는 31자 “阮光祿…”은 33자). “王子猷云…”은 王子敬의 誤記이다. 여기에 나오는 인물은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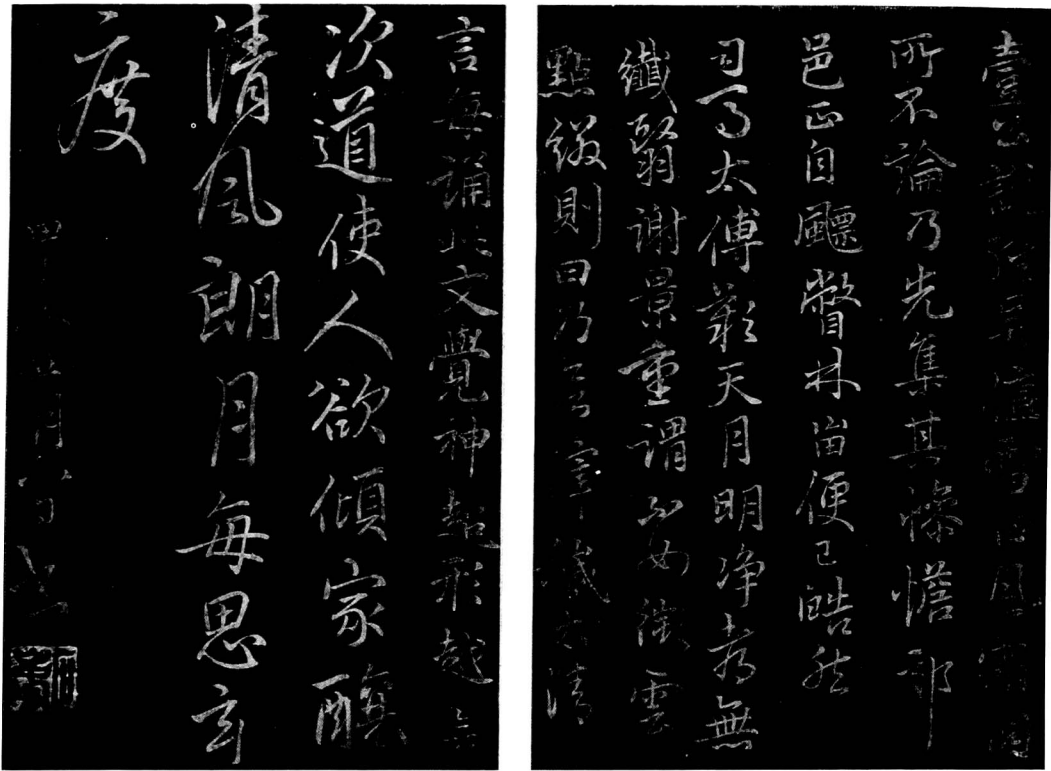


圖 13. 한호, <世說新語 구절> 제1·5면, 黑紙金泥 각19.7×12.9cm.

圖 13-1. 한호, <世說新語 구절> 제3면,
木刻本 線裝『石峯書蹟』, 개인소장.



- 僧 道壹 (? - ?, 王珣·孫綽 등과 교유)
- 司馬太傅 (364-402, 자 道子, 河內 濰縣人, 簡文帝 子, 會稽王)
- 張 翰 (258-319, 자 季鷹, 吳郡 吳人)
- 郁 超 (336-377, 자 景興, 高平 金鄉人, 양희지 外姪)
- 王 徽之 (? -388, 자 子猷, 會稽人, 양희지 第5子)
- 阮 裕 (62세卒, 자 思曠, 會稽 剡縣人, 光祿大夫, 阮籍 族弟)
- 王 敦 (266-324, 자 處仲, 琅邪 臨沂人, 양희지 堂叔)
- 郭 璞 (276-324, 자 景純, 河東 聞喜人)
- 司馬昱 (320-372, 자 道萬, 河內 濰縣人, 東晉 簡文帝)
- 顧 愷之 (345-411, 자 長康, 晉陵 無錫人)
- 王 獻之 (344-388, 자 子敬, 會稽人, 양희지 第7子)
- 荀 羨 (? -359, 자 英則, 潁川人, 北中郎將)
- 康 僧淵 (? - ?)

왕희지가 內史라는 마지막 관직을 지낸 會稽(절강성 소흥현)와 관련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추구했던 경지는 바로 왕희지가 353년(47세) 41명의 명사들과 함께 회계 山陰의 蘭亭에서 祓禊雅集(不祥한 것을 떨어내는 의식)을 하면서 짓고 쓴 蘭亭敘의 경지와 같은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 왕희지 서법을 이상향으로 삼았던 한호에게 회계의 산천과 명사들의 언행을 적은 『세설신어』의 구절은 의미있게 받아들여졌을 것이고 이를 필사하여 그들의 高雅한 경지를 이해하려 했을 것이다(圖 13-1). 『세설신어』 구절을 쓴 중간 부분에 한호가 “이 道는 사람으로 하여금 집에 있는 술을 기울일 정도로 맑은 바람 밝은 달처럼 매번 현묘한 헤아림을 생각해 한다”는 느낌을 적었듯이 한호는 그들이 추구했던 吟風弄月의 경지를 동경했던 것이다.

14) 高敬命, 「玉河館題石峯書帖」

석봉의 서법은 현묘한 이치에 통했으니 마음과 정신이 맺히고 손 또한 따르네.
 처음엔 瘞鶴銘* 중에서 필력을 얻었고 뒤늦게 換鵝經 속에서 취함을 더했지.
 활쏘기는 버들가지 사이를 맞출 정도이며 교묘히 丹을 이루어 허물도 벗었다네.
 별이 析津**으로 움직여 이상한 기운 오르니 술취한 燕市는 웅대한 모습이라.
 쇠북을 치면 성문이 제한되나 또다시 비탈진 강가에 가서 硯池를 만든다네.
 바라건대 유종원의 산수기를 써준다면 대나무숲 깊은 곳에서 누워서 보리다. 제봉.

「옥하관에서 석봉의 서첩에 題함」 신사년(1581) 여름.

옛스러운 먹빛은 千斤이나 무겁고 장대같이 기다란 획은 百尺을 넘었다네.
 용이 서린 듯 張旭의 초서이요 호랑이가 뛰어오르는 듯 右軍의 글씨라네.
 石峯書法透玄機 心與神擬手亦隨 瘞鶴銘中初得力 換鵝經裏晚添奇
 精於射到穿楊後 妙似丹成蛻骨時 星動析津騰異氣 酒酣燕市逞雄姿
 應須打鐵爲門限 更遣懸河作硯池 願寫柳文山□記 竹林深處臥看之 霽峯

玉河館題石峯書帖 辛巳夏

古墨千斤重 長杠百尺餘 龍盤張旭草 虎躍右軍書

* 瘞鶴銘：南朝 梁 陶弘景(456-536, 자 通明, 호 華陽隱逸)의 글씨로 전함. 原刻은 鎮江 焦山の 西麓 암벽에 있었는데 宋代 雷擊으로 강에 떨어져 다섯 조각이 되었다. 淸 1713년 산위로 옮겨졌다. 현재 焦山碑林에 전하며 30餘字만이 잔존한다. 남조의 대표적 大字楷書로 필의가 雄建深重하다.

** 析津：燕京 內城의 서남쪽. 예전에 계북현(衛北縣)·大興縣으로 불렸다.

위 칠언시는 1581년 여름 宗系辨誣 奏請使 金繼輝의 서장관였던 高敬命(1533-92, 호 霽峯)이 북경을 떠나기에 앞서 숙소 玉河館에서 동행한 上舍(進士) 한호의 서첩에 題한 시이다.³²⁾ 한호는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 항전하다 순절한 고경명을 기리는 뜻에서 그와 함께했던 옛

32) 高敬命, 『霽峯集』卷4 「題同行韓上舍景洪詩帖」二首. 『한경홍진적』에 쓰인 것은 제2수이다. 한호 글씨에는 “願寫柳文山□記”의 水자가 빠졌는데 아마 改裝할 때 文자와 記자 사이를 절단하면서 탈락된 듯하다. “柳文山水記”는 遊記體 문장의 시조로 유명한 唐 柳宗元의 「山水遊記」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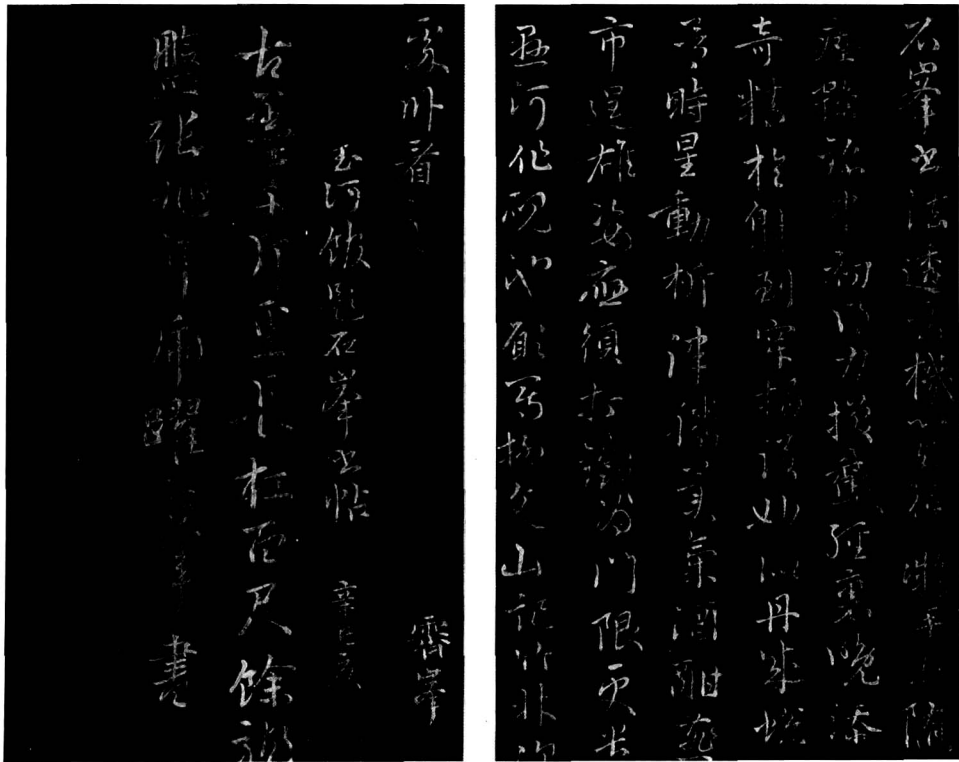


圖 14 한호, 〈玉河館題石峯書帖〉, 黑紙金泥 각21×12.3cm.

시절을 회고하며 이를 필사했을 것이다. 고경명의 시 가운데 처음에 瘞鶴銘에서 필력을 얻었고 뒤에 換鵝經(黃庭經)에서奇함을 더했다는 구절은 한호의 서예와 관련된 귀중한 정보이며, 활쏘기에 뛰어나고 道家的 취향이 있다는 구절도 소중한 정보이다.

이어 필사되어 있는 無題의 오언절구도 고경명이 지은 것인지 알 수는 없으나 한호가 흠모했던 장욱과 왕희지를 거론한 점을 보면 필시 한호를 이해했던 사람이 지었을 것이다.

15) 韓愈, 「劔銘」·李白, 「古風」第16首

利劔光耿耿 佩之使我無邪心 故人念我寡儔侶 持用贈我比知音 我心如霜劔如雪 不能刺讒夫 使我心腐劔鋒折 決雲中斷開青天 噫劔與我俱變化歸黃泉 / 右韓昌黎劔銘
寶劔雙蛟龍 雪花照芙蓉 精光射天地 雷騰不可衝 一去別金匣 飛沈失相從 風胡滅已久 所以潛其鋒 吳水深萬丈 楚山邈千重 雌雄終不隔 神物會當逢 / 右李謫仙古風

한유의 시(「利劍」이라고도 함)는 날카로운 칼로 헛된 구름을 잘라버려 푸른 하늘을 열겠다는 邪心없는 의지가 담긴 것이며, 이백의 시는 당시의 時弊를 고치려면 옛날로 돌아가야 한다는 뜻을 담은 「古風」 59수 중의 한 수로서 날카롭고 번쩍이는 보검의 기세를 吳水와 楚山에 비유한 것이다.³³⁾ 모두 비장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필시 한호의 취향에 맞았을 것이며, 또한 예리한 劍鋒은 곳곳한 筆鋒을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필사의 의미도 짐작하게 한다. 또한 이 시들이 古詩의 형식을 취한 예라는 점에서 한호의 고풍스런 취향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圖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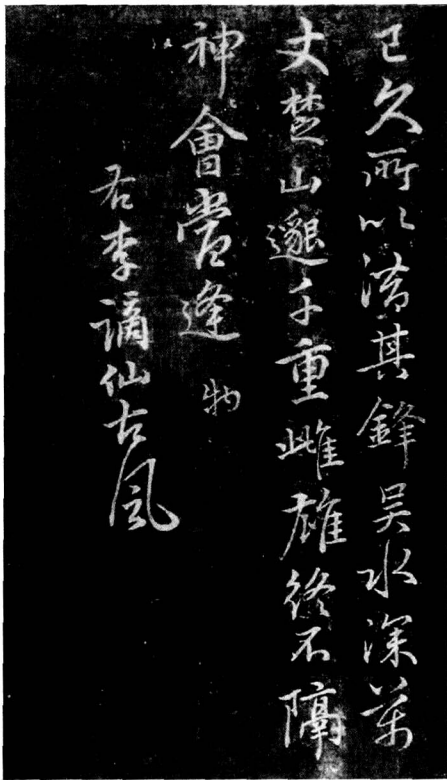


圖 15. 한호, 〈利劍·古風〉, 黑紙金泥.
21.6×12.4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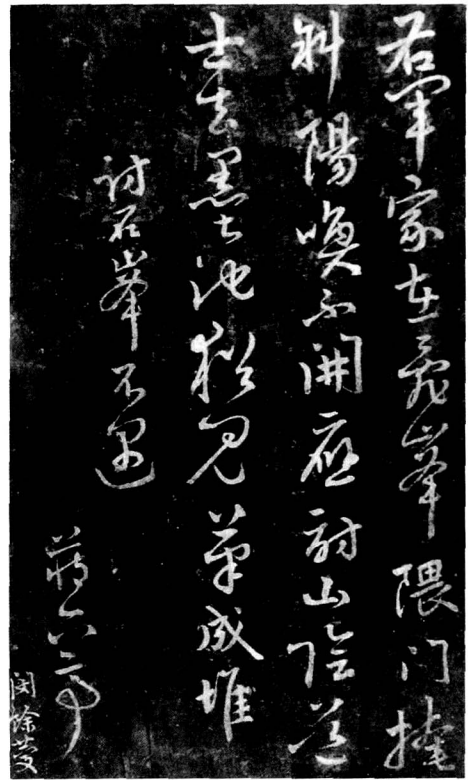


圖 16. 한호, 〈訪石峯不遇〉, 黑紙金泥.
20×12.4cm.

33) 『韓昌黎詩集』 卷2 古詩 「利劍」; 『李太白詩集』 卷2 「古風」 第16首. 『漢詩大觀』(東京: 井田書店, 1943)三, p.1603; 二, p.844 참조.

16) 閔餘慶, 「訪石峯不遇」

우군의 집은 난봉 굽이에 있는데 저녁별에 닫힌 문은 불려도 안열리네.
 분명 산음도사를 만나러 갔으니 시꺼먼 못 여전하고 붓무더기 이루었네.
 「석봉을 찾아갔으나 못만남에」 / 장육정 (민여경)
 右軍家在亂峯隈 門掩斜陽喚不開 應訪山陰道士去 墨池猶見筆成堆
 訪石峯不遇 / 蔣六亭 (閔餘慶)

위 칠언절구는 蔣六亭 閔餘慶의 시로 적혀 있는데 당대인으로 그런 사람을 찾지 못했다. 단지音が 같은 사람으로 驪興閔氏의 ‘汝’자 항렬의 閔汝慶(1546-1600, 자 而吉, 호 棠沙)이 한호와 교류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후 한호가 그의 이름을 적으면서 당시 송설체의 명서가였던 金玄成(1542-1621, 자 餘慶, 호 南窓)의 字와 혼동했을지 모르겠다. 민여경이 누구이든간에 이 시 또한 한호에 대한 당시의 평가를 잘 보여주는 예이다. 작자는 왕희지의 換鵝故事, 漢張芝가 못가에서 글씨를 배울 때 못물이 시꺼멓게 될 정도로 열중했다는 臨池故事, 그리고 唐懷素스님이 草書三昧에 빠져 쓰다버린 붓이 쌓여 이를 산아래 묻었다는 筆塚故事 등 대표적인 서예고사를 모두 들어 한호를 칭송했다(圖 16). 한편 시에서 우군(한호)의 집은 亂峯(높이가 고르지 않은 산봉우리) 굽이에 있다고 했는데 그곳은 한호가 노년에 거처하던 牛峯(황해도 金川郡 우봉면)의 石峯草廬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17) 作者未詳, 「張彥遠本傳」

당나라 장언원이 말하기를 “글씨는 小道가 아니라 본래 인륜을 돕고 물리를 궁구하려는 것이니, 신비롭게 변화해도 그 비법을 감출 수 없고 신령스럽게 괴이해도 그 모양을 숨길 수 없는 즉, 盤礴*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진실로 雲夢**의 여덟아홉을 이미 삼켜버린 것이다.”라고 하였다.

唐張彥遠曰, 書非小道, 道本以助人倫窮物理, 神化不能以藏其秘, 靈怪不能以遁其形, 則盤礴胸次者, 固已吞食雲夢之八九矣.

* 반박(盤礴): “옷을 풀고 다리를 뻗는(解義盤礴)” 자유로운 정신상태를 말함. 『莊子』 卷21 「田子方」.

** 雲夢: 호북성 효감현 서북쪽에 있는 사방 구백리의 큰 늪. 楚 七澤의 하나.

「장언원본전」은 작자미상의 『畫譜本傳』에서 인용된 것으로 唐 張彥遠(815-?)이 역대서론을 모아 편집한 『法書要錄』 권10 말미에 실려 있다(圖 17).³⁴⁾ 한호가 이 구절을 필사한 것은 글

34) 『法書要錄』 卷10 「張彥遠本傳」. 楊家駱 編, 『唐人書學論著·宣和書譜』 藝術叢編 第1集(臺北: 世界書局, 1981), p.184. 『한경홍진적』에 “書非小道, 道(衍字임)本以助人倫窮物理, …則(知 빠짐)盤礴胸次者, 固已吞食(衍字임)雲夢之八九矣.”의 오기가 있다. 『화보본전』에 대해서는 余嘉錫, 『四庫提要辨證』 卷14 子部5 「法書要錄」條(香港: 中華書局, 1973), p.77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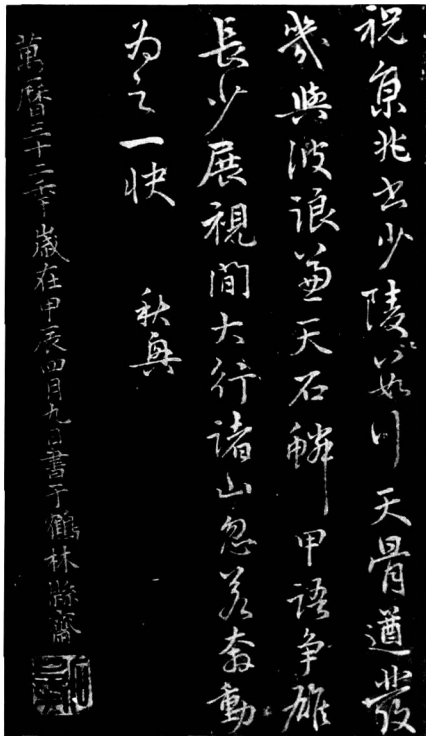


圖 17. 한호, 〈張彦本傳〉, 黑紙金泥 20.7×12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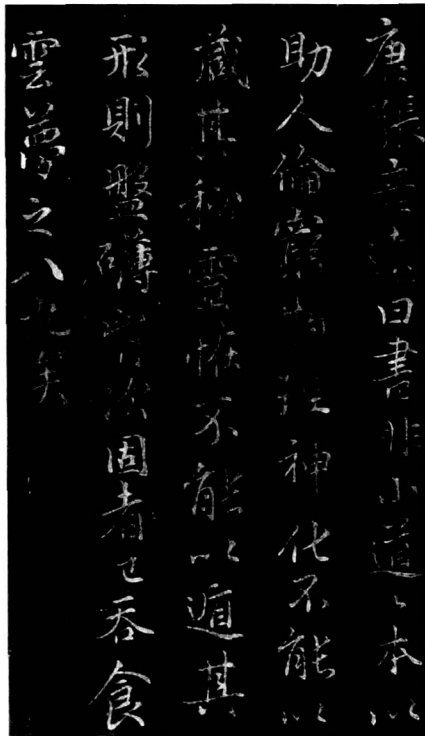


圖 18. 한호, 〈祝京兆小陵秋興八首為王明輔題〉, 黑紙金泥 20.7×12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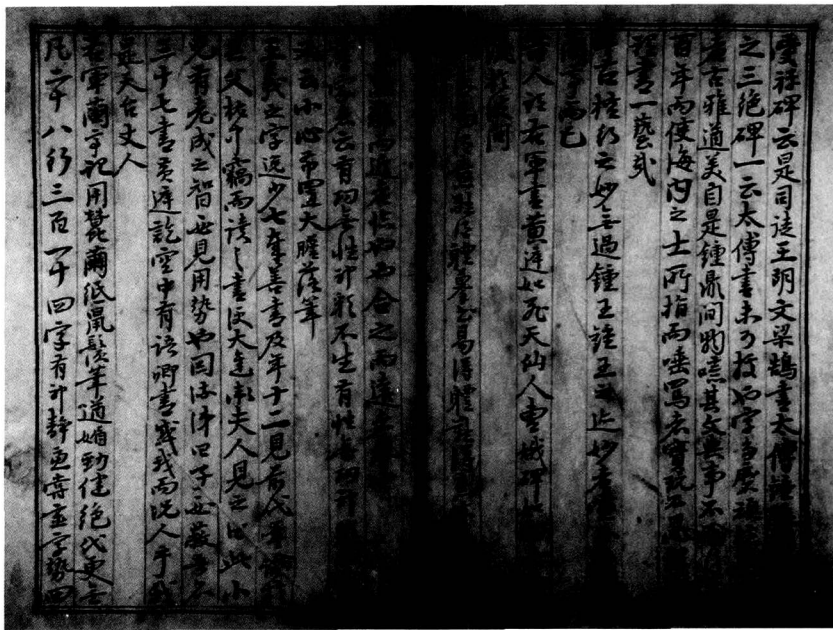


圖 18-1. 〈石峯筆帖〉 제3장, 지본묵서 32.5×23.6cm 『石峰筆帖』,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씨를 小道라는 시각에서 敎養이나 餘技로 보는 것과 달리 인륜을 돕고 물리는 궁구하는 것으로 여기는 적극적인 書藝觀을 따랐다고 할 수 있으며, 또 글씨가 쓰는 사람의 마음이 드러나기 마련이므로 俗事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정신을 지니면 이를 수 있다는 心性論的 견해를 따랐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서예관은 직업서가로서 입신했던 한호에게는 자신의 삶의 의미를 지탱해주는 절대적 이념이었을 것이다.

18) 王世貞, 「祝京兆小陵秋興八首爲王明輔題」

祝京兆(축윤명)가 쓴 두소릉의 「추흥」 몇 행은 천연스러운 골기가 굳세게 피어나 거의 파도가 이는 것 같고 천연석과 고기비늘을 겸한 듯 語句가 웅대하고 深長함을 다투니, 잠시 펼쳐보는 사이에 太行*의 여러 산이 갑자기 치달리고 움직이는 듯 하나의 장쾌함을 이룬다.

만력 32년(1604) 갑신년 4월 9일 학림현 서재에서 씀. 「석봉」

祝京兆書少陵秋興數行, 天骨適發, 幾與波浪, 兼天石鱗甲, 語爭雄長, 少展視間, 大行諸山, 忽若奔動, 爲之一快.

萬曆三十二年歲在甲辰四月九日, 書于鶴林縣齋. 「石峯」

* 太行 : 산이름. 山西省 晉城縣 남쪽의 태행산맥 主峰. 이칭은 大行山·五行山·王母山·女媧山.

위는 王世貞이 王明輔(?)를 위해 祝允明(1460-1526, 자 希哲, 호 枝山)이 쓴 杜甫詩 「秋興八首」에 대해 적은 글이다(圖 18).³⁵⁾ 「추흥팔수」는 두보가 대력원년(766) 가을 夔州(四川省 奉節縣)의 西閣에 머물렀을 때 지은 연작시로서 장안에서의 옛일과 고향을 그리워한 내용이다. 왕세정의 題文을 보면 축윤명의 글씨는 장쾌한 필세의 초서로 생각되는데 그런 점에서 한호의 취향과 맞는 글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축윤명이 고법에 충실한 면모를 지녔으면서도 개성적 필치를 강하게 보인 기이한 행동의 서예가였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한편 말미의 관지에 나오는 “鶴林縣”은 당시 한호가 현령으로 재직하던 歙谷縣의 雅稱으로 기년이 없는 한호의 필적 가운데 “鶴林”이 나오는 예들의 필사시기를 추정하는 단서가 된다.³⁶⁾

이상과 같이 제2첩을 살펴본 것과 관련하여 「石峯筆訣」이란 제목의 木刻本이 주목된다. 내용은 전술했던 13항의 『世說新語』 구절, 12항의 『華嶽志』의 李白語句, 17항의 「張彥遠本傳」,

35) 王世貞, 『弇州四部稿』 文部 卷132 墨蹟跋, 「祝京兆秋興八首爲王明輔題」, “祝京兆書本作顛旭, 時時闌入顛芾中, 此卷書少陵秋興數行後, 天骨適發…(이하 同)…” (文淵閣四庫全書 第1281冊, p.195)

36) 肅州현은 강원도 통천군 아래에 있던 현으로 習比谷·習磧·鶴林 등으로도 불렸다. 고려 1248년(고종 35) 현령을 두었고 1596년 통천군에 합쳐졌다가 1598년 다시 설치되었다. 肅州에는 涓湖가 발달하여 이곳에 학들이 많이 서식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여졌다. 『新增東國輿地勝覽』 卷45 歙谷縣條 참조. 『歙谷邑誌』 (藏書閣 2-4344)를 보면 “客舍(在衙南南, 鶴林館額字, 邑先生石峯筆云云, 癸坐丁向)” 「邑先生案」에 “韓濩(號石峯癸卯八月到, 甲辰閏九月罷)”라는 기록이 있다.

18항의 王世貞 「祝京兆小陵秋興八首爲王明輔題」에 이어 漢~宋代 명서가의 필적에 관한 왕세정의 글 59편, 작자미상의 「篆勢」·「隸勢」·「崔瑗授鍾繇永字八法」·「衛夫人授王羲之永字八法」, 한호가 쓴 '永'자, 그리고 元 傅光과 明 張弼·張駿·祝允明의 글씨를 평한 왕세정의 跋文 5편이다.³⁷⁾

말미 識文에는 1580년 鑄字都監에서 같이 일했던 이의 아들 白進士(白振南)에게 1604년 7월 하순 歙谷縣齋에서 써보낸다고 되어 있다. 이로 보면 본 필결이 백진사의 서예학습을 위해 써준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아울러 역대서예에 대한 한호의 인식도 이에 기초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중 마지막 줄에 “元 이하는 晉代筆法이 없기 때문에 永자 아래에 둔다(元以下無晉法, 故在永字下)”고 적었듯이 元·明代 서예에 대해 비판적이었는데, 특히 조맹부의 필적에 관한 왕세정의 題跋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채록하지 않은 것은 송설체에 대한 한호의 입장을 잘 대변한다. 이에 반해 元僧 傅光(자 玄暉, 호 雪菴)에 관한 글을 넣은 것은 한호가 그의 大字筆法을 따랐기 때문일 것이며, 또 明 張弼·張駿·祝允明에 관한 글을 넣은 것도 그들이 고법을 바탕으로 특유의 草風을 이루었다는 측면에서 한호의 취향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圖 18-1).

〈第3帖〉

19) 老子, 『太上老君說常清靜經』

說常清靜經 李清庵本 白瓊□□章

老君曰, 大道無形, 生育天地, 大道無情, 運行日月, 大道無名, 長養萬物, 吾不知其名, 強名曰道.

右先天大道章

夫道者, 有清有濁, 有動有靜, 天清地濁, 天動地靜, 男清女濁, 男動女靜, 降本流末, 而生萬物, 清者濁之源, 動者靜之基, 人能常清靜, 天地悉皆歸.

右造化自然章

夫人神好清而心擾之, 人好靜慾牽之, 常能遣其慾而心自靜, 澄其心而神自清, 自然六慾不生, 三毒消滅. / 所以不能者, 心爲未澄, 慾未遣也. 能遣之者, 內觀其心, 心無其心, 外觀其形, 形無其形, 遠觀其物, 物無其物, 三者既悟, 懼見於空. / 觀空亦空, 空無所空, 所空既無, 既無亦無, 亦無既無, 湛然常寂, 寂無所寂, 慾豈無生, 慾既不生, 卽是真靜, 真常應物, 真常得性, 常應常靜, 常清靜矣. / 如此清靜, 漸入真境, 既入真道, 名爲得道, 雖名得道, 實無所得, 爲化衆生, 名爲得道, 能悟之者, 可傳聖道.

右全神合道章

37) 한호가 小字·中字 행서로 쓴 것을 木刻한 것으로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전하며, 『華東書法』이란 木刻帖에도 일부 모각되어 있다. 寫本도 전한다(국립중앙박물관, 德4314). 여기에 인용된 王世貞의 글은 『弇州四部稿』 文部 卷132 「墨蹟跋」; 卷134·135 「墨刻跋」; 卷153·154 說部 『藝苑卮言』 附錄2·3에 실려 있다.



圖 19. 한호, 《說常清淨經》 제1·5면, 지본묵서 각21.1×1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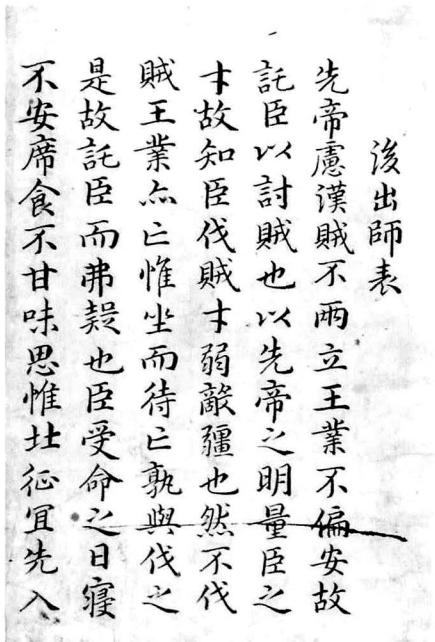


圖 19-1. 한호, 《後出師表》 제1면, 지본묵서 30.5×20cm 『石峰眞蹟』帖裝, 한빛문화재단 소장.



圖 19-2. 한호, 《石峯清妙草廬詩序》 제1면, 1601年書 木刻本 線裝, 개인소장.

老君曰，上士無爭，下士好爭，上德不德，下德執德，執着之者，不名道德。 / 衆生所以不得眞道者，爲有忘心，既有忘心，卽驚其神，既驚其神，卽着萬物，既着萬物，卽生貪求，既生貪求，卽是煩惱，煩惱妄想，憂若身心，便遭濁，流浪生死，常沈苦海，永失眞道。 / 眞常之道，悟者自得，得悟道者，常清靜矣。

右賢愚見識章

說常清淨經 「石峯」

위 道敎經典은 老子가 설했다고 하는 『太上老君說常清靜經』(약칭 『常清靜經』)이다. 첫 행에 “李清庵本”이라 쓰여 있듯이 한호가 참고한 본은 元나라 도사 李眞純(자 元素, 호 瑩蟾子·清庵)이 주석한 『太上老君說常清靜經註』이다.³⁸⁾ 경전제목을 쓰면서 한호는 ‘靜’자를 ‘淨’자로 옳기 했는데 아마 老子的 清淨無爲나 佛家の 清淨無垢와 혼돈한 듯하다. 글씨는 한호의 전형적 小楷로서 단정한 필치이다(圖 19·19-1).

이 道經의 필사는 도교에 관한 한호의 취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앞서 2·4항의 자작시 「九龍硯」·「賜硯」에서 한호가 왕희지의 黃庭經을 늘 베꼈다고 했고 13항에서 한호가 晉代名士들의 清淡한 언행을 적은 『世說新語』 구절을 필사한 것처럼 晉代의 서예를 이상으로 삼았던 한호가 당시 士類間에 풍미했던 도교에 관심두지 않았을 리 없다. 특히 왕희지 집안이 대대로 도교의 전신인 五斗米敎를 신봉했고 왕희지가 會稽內史로 머물렀을 때 道士 許邁에게 직접 도교를 배웠으며 그의 둘째아들 王凝之가 광신적인 신봉자였다. 또 왕희지가 道家의 養生法인 服食을 위해 五石散(다섯가지 석재로 만든 가루약)을 복용했다는 이야기나 회계의 산천을 사랑하여 謝安·孫綽·支遁 등의 명사와 함께 隱逸清淡을 즐겼다는 것도 이를 대변하는 예들이다.³⁹⁾ 이와 관련하여 한호가 「石峯清妙草廬詩序」⁴⁰⁾를 지어 자신의 거처를 찬미했던 것도 이러한 棲逸사상에서 영향받았다고 할 수 있다. 즉 맑고 고요한 清靜의 平常心을 통해 玄妙한 大道를 깨우치고자 清妙草廬에서 살겠다는 한호의 심리를 엿볼 수 있다(圖 19-2).

38) 『常清靜經』은 노자에게 假託된 후대의 僞經으로 『노자』에 清靜에 관해 언급한 구절 때문이다(『老子』 卷45, “躁勝寒，靜勝熱，清靜可以爲天下正.”). 이에 관해 王世貞, 『弇州續稿』 卷158 文部 書道經後, 「常清靜經」(文淵閣四庫全書 第1284冊, p.284)이 참고된다. 주석본으로 李清庵本·無名氏本·王元暉本·侯善淵本·杜光庭本·王道淵本 등이 전한다. 『正統道藏』(臺北:新文風出版公司, 1977) 第28冊 洞神部 玉訣類, pp.755-758 참조. 한호 글씨의 “白瓊□□章”에 대해서는 미상이다.

39) 森野繁夫(모리노 시게오), 『王羲之傳』(東京:白帝社, 1988), pp.81-86·105-112 참조.

40) 흔히 말하는 <석봉정묘초려시서>는 1610년 7월 24일 가평군 서재에서 짓고 쓴 목각본을 말한다(말미 “萬曆廿九年歲在辛丑，時維七月二十四日，牛山韓漫景洪讚并書于嘉平郡齋。『石峯』”). 최근 이보다 앞선 1598년 6월 4일에 쓴 진적이 발견되어 작성년대를 수정하게 되었다. 여기에는 한호의 자작시 「五松亭」 6首都 포함되어 있다(紙本墨書 27.5×15.2cm, 帖裝, 개인소장. 말미 “萬曆廿六年戊戌季炎四日，景洪撰并書。『石峯』”). 은일사상은 특히 序詩에 잘 나타나 있다(“石峯之下卽吾廬 萬丈芙蓉入紫虛 高臥雲松塵想絕 朗吟霜月俗緣疎 林深自愛幽禽托 境僻還宜靜者居 閒寫黃庭北窓裏 好風時卷一床書”).

3. 석봉 한호의 作家像

『한경홍진적』은 한호가 1602년 7월 14일 필사를 시작하여 1604년 4월 8·9일에 마친 것으로 평소 좋아했던 시문을 써서 후세에 남기고자 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본 서첩에 실린 시문이 한호의 다른 필적에 다수 보이며 1596년 최립이 지은 「題韓景洪書帖後序」를 서첩의 머리에 두었다는 점에서이다. 서첩의 내용을 통해 한호의 작가적 성격을 여러 측면에서 살필 수 있었는데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文學的 傾向이다. 詩에서는 李白을 매우 좋아했고 詩作에서도 자질을 보여 清新한 시풍을 이루었으며, 文에서는 『史記』·『三國志』 등의 史書에 기초한 古文을 좋아했다. 이런 경향은 王世貞 등 明代文人의 文學論이나 자신과 교류했던 문사들을 통해 형성된 듯하다. 그의 친우였던 崔岵·許筠·車天輅 등이 당시 詩文으로 유명했던 점에서 짐작되는데, 그중에서도 先秦古文을 추구하여 擬古文體에 뛰어났던 최립의 영향이 가장 컸으며 그를 통해 『易』에 대한 이해도 넓혔던 것으로 보인다. 시문의 품격에 있어서는 壯快한 기상과 悲壯한 풍격을 애호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書藝觀이다. 우선 「張彥遠本傳」의 필사에서 짐작되듯이 글씨를 小道가 아닌 인륜을 돕고 물리를 궁구하며 心性을 표현하는 적극적인 방도로 보았다고 하겠다. 역대서법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와 같이 典雅한 품격의 晉 王羲之를 매우 숭상했음이 곳곳에서 확인되며, 초서에서는 豪放한 기세의 唐 張旭도 추구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元·明代 서예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었는데 특히 趙孟頫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이러한 역대서법에 대한 이해는 문학에서와 같이 王世貞 등의 明代書論에 힘입었던 것으로 보인다.

셋째, 道敎的 성향이다. 한호는 왕희지의 서법을 지향하면서 왕희지의 道家的 언행이나 당시 士類間에 팽배했던 은일사상에 심취했다. 晉代 명사들의 清淡高逸한 逸事瑣語를 적은 『世說新語』를 즐기고 이를 서예정신으로 적용했다거나 도교경전인 『黃庭經』이나 『常清靜經』을 필사했던 것은 좋은 사례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호가 棲逸의 의향을 담은 「石峯清妙草廬詩序」를 지었다거나 昇仙의 의미가 담긴 許蘭雪軒의 「廣寒殿白玉樓上樑文」을 마지막 書作으로 남겼다는 것도 이런 측면에서 이해된다. 한편 활쏘기를 잘했다는 기록도 보인다.

넷째, 交友 관계이다. 우선 알려진 바와 같이 崔岵과의 교분이 매우 깊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題韓景洪書帖後序」를 비롯한 최립의 시문이 4편이나 필사된 것으로도 짐작된다. 한호는 그를 통해 詩文에 대한 이해를 넓혔으며 또 그를 통해 年下의 李楨과도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滕季達·高敬命·閔餘慶과의 교류도 확인되는데, 특히 1572년 내조한 明人

등계달의 체류기간과 그가 한호에게 남긴 시는 의미있다.

다섯째, 말년의 基準作이 된다. 본 서첩의 楷行草를 보면 한호가 말년에까지 古法을 얼마나 존중했는가를 알 수 있으며 그러면서도 법식에 얽매이지 않은 圓熟하고 沈潛한 면모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본 서첩이 조선후기의 서화수장가 抱拙堂 金光國의 소장품이었다는 사실도 본 서첩의 가치를 높여주는 점이다.

아직까지 한호의 서예에 대한 학술적 연구가 드물고 또 이에 대한 인식도 고르지 않다. 이런 점에서 필자가 한호의 작가적 성격을 이끌어내 보고자 관련자료를 엮어 보았지만 혹 논거가 불충분한 추측도 있었을 것이다. 본 서첩에 亡者遷度를 위한 于蘭盆齋 전날인 7월 14일과 佛誕日인 4월 8일 및 그 이튿날의 기년이 있다는 인연으로 한석봉 연구의 좋은 시발이 되었으면 한다.

끝으로 『한경홍진적』에 誤字·脫字·衍字가 몇몇 보이는데 거의 중국문헌을 필사한 부분에 보인다. 판본에 따라 異字가 있을 수 있으며 뜻이 통하면 문제되지 않겠지만 王世貞을 王世楨으로 쓴 예는 큰 실수이다. 또한 교정부호나 교정자를 사용한 예도 적지않아 나이든 한호의 기억력을 짐작케 한다. 아래에 誤記 사항을 정정한다.

表 2. 『한경홍진적』의 正誤

항	誤 (正)
7) 王世貞 詩話	弇州山人王世楨(貞)元美, …
10) 『三國志』 魏書 「三少帝紀」	高貴卿(鄉)公, …
12) 『華嶽志』	…想通帝坐(座), 恨不携謝眺(眺)驚人詩來, …
13) 『世說新語』	王子猷(敬)云, …
17) 「張彥遠本傳」	…書非小道, 道(衍字임)本以助人倫, … …則(知 ㅍㅈ)盤礴胸次者, 固已吞食(衍字임)雲夢之八九矣.
19) 『太上老君說常清靜經』	說常清淨(靜)經 * 앞·뒤의 제목 …夫人神好清而心擾之, 人好靜(而 ㅍㅈ)慾牽之, … …便遭濁(辱 ㅍㅈ), 流浪生死, …

表 3. 石峯 略譜

歲	연	대	내	용
25	1543 (중종38)	11. 15	松都에서 출생. 父親 韓彦恭. 母夫人 白氏.	
	1567 (명종22)		進士試에 합격.	
30	1572 (선조 5)	10.	鄭惟吉의 遠接使行에 참여.	
38	1580 (선조13)		鑄字都監에 종사.	
39	1581 (선조14)		金繼輝의 奏請使行에 참여.	
40	1582 (선조15)		活人署 別提. <許曄神道碑> 건립.	
		12.	李珣의 遠接使行에 참여.	
41	1583 (선조16)	1.	五衛 副司果 재임시 왕명으로 <楷書千字文> 씌.	
		윤2. 1	瓦署 別提 재임.	
43	1585 (선조18)	5.	<徐敬德神道碑> 건립.	
44	1586 (선조19)	9.	<洪暹神道碑> 건립.	
46	1588 (선조21)		北部 司導. 司宰監 主簿.	
48	1590 (선조23)	8.	光國功臣教書 씌.	
50	1592 (선조25)		임진왜란 발발. 義州로 왕을 扈從함.	
51	1593 (선조26)		<箕子廟新碑> 건립.	
		9.	戶曹正郎 재임.	
		11. 10	崔崐의 奏請使行에 참여.	
54	1596 (선조29)	2. 頃	工曹正郎에서 해직. 牛峯村舍 돌아감.	
55	1597 (선조30)	9.	<草書千字文> 씌.	
56	1598 (선조31)	6. 4	「石峯清妙草廬詩序」 지음.	
57	1599 (선조32)	3. 19	司禦에서 遞差됨.	
		윤4. 10	宗親府 典簿 재임. 이후 加平郡守에 임관.	
		7.	<楷書千字文> 內府에서 開刊.	
		10. 頃	加平郡守에서 해직.	
60	1602 (선조35)	11. 16	李廷龜의 遠接使行에 製述官으로 수행.	
		6.	<幸州大捷碑> 건립.	
		8. 1	歙谷縣令으로 임관.	
61	1603 (선조36)	3.	<李夢亮神道碑> 건립.	
		9.	扈聖功臣教書·宣武功臣教書 씌.	
		윤9. 14	歙谷縣令에서 파직.	
		11. 22	尊崇都監 書寫官으로서 兒馬 1匹을 받음.	
63	1605 (선조38)	5. 15	<廣寒殿白玉樓上樑文> 씌.	
		7. 1	牛峯村舍에서 사망. 戶曹參議에 추증됨.	

[ABSTRACT]

A Portrait of Han Ho as an Artist : *Han-gyöng-hong-jin-jök*

Yi, Wan-woo

Sök-pong(石峯) Han Ho(韓濩, 1543-1605) was a representative calligrapher of mid-Chosön peorid. He has greatly affected upon the history of Korean calligraphy. However, there is no research on his life or his character as an artist so that we have found difficulty in interpreting his works.

Han-gyöng-hong-jin-jök(韓景洪眞蹟) is an important materials for understanding the portrait of Han Ho as an artist for the following reasons. It was scribed by him in his last years(1602-04). It consists of three albums. The first and second albums contain his own poems, the poems given to him by his friends, and Chinese literary works. In the third album a Taoist sutra is scribed. It was possessed by P'o-jol-dang(抱拙堂) Kim Kwang-guk(金光國), who was a famous collector in later-Chosön peorid. It is now kept in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Seoul. By analyzing it, we can figure out, inter alia, his literary inclination, his viewpoints on calligraphy, and his philosophy on life.

First, Han Ho was very fond of Li Pai(李白)'s poems and also liked the classics based on books of history such as *Shih chi*(史記). His literary inclination like that seems to have been influenced by his friends' viewpoints on literature as well as the literary theory of Wang Shih-chên(王世貞) in Ming peorid. He had a talent for poetry and also liked poems which have a valiant spirit and thrilling taste.

Secondly, he regarded calligraphy as a way to cultivate human nature and express moral nature. He admired, among Chinese calligrapher, Wang Hsi-chih(王羲之) who was of an elegant character. In grass-hand writing he also pursued Chang Hsi(張旭)'s wild style. But

he assumed a critical attitude to the calligraphy of Yüan and Ming periods. He did not even mention Chao Mêng-fu(趙孟頫) who was then popular in Korea.

Thirdly, he was interested in Taoism. While pursuing Wang Hsi-chih's calligraphy style, Han Ho followed Wang's Taoistic words and deeds. He was also fascinated with seclusionism which was popular among the gentry of Chin(晉) period. It is a good piece of evidence for his Taoistic tendency that he scribed Taoist sutras such as *Huang-t'ing-ching*(黃庭經) · *Ch'ang-ch'ing-ching-ching*(常清靜經) and very much liked *Shih-shuo-hsin-yü*(世說新語) which records beautiful words and deeds of the celebrities of Chin.

Fourthly, we can see that he kept company with Ch'oi Rip(崔嵬), T'êng Chi-ta(滕季達, Chinese), Ko Kyöng-myöng(高敬命), Min Yö-gyöng(閔餘慶). Among them, Ch'oi Rip was one of his relatives and had much influence on him in literature.

Finally, these albums are a standard work of his last years. From them we can find that his writing style was rooted in the classical ones such as Wang Hsi-chih's and that he developed his own style rather than being fettered from them.